

後燕의 代北 遊牧諸部 정책과 拓跋部の 부상

— 登國年間 後燕-拓跋部 관계의 原像

崔珍烈*

- | | |
|--------------------------------|-----------------|
| I. 서론 | IV. 拓跋珪의 자립과 叛燕 |
| II. 後燕의 拓跋部 復國 지원과 그 배경 | V. 결론 |
| III. 後燕의 代北 以夷制夷 정책과 拓跋部の 반사이익 | |

● 국문초록

이 글은 拓跋珪(道武帝) 登國年間 기록을 재검토하여 拓跋珪가 처음부터 代北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확립되었다고 기록한 『魏書』 「太祖紀」의 기록이 사실을 왜곡했음을 논증한 논문이다.

383년 淝水의 전쟁 패배 이후 前秦이 붕괴되자 後燕을 세운 慕容垂는 代北의 獨孤部·賀蘭部 등 유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기 밑에 있던 拓跋珪를 보내 拓跋部の 수장이 되도록 공작하였다. 拓跋珪의 주변에 拓跋部の 수장 자리를 다투는 숙부 拓跋窟咄과 사촌동생 烏渥, 獨孤部の 劉顯, 숙적 鐵弗部の 劉衛辰의 숙적들이 있었다. 後燕은 窟咄, 劉顯의 獨孤部, 賀蘭部 등 적대세력을 격파하여 代北에서 反後燕 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代北에서 拓跋部를 견제할 강력한 세력이 사라지게 되어 拓跋部가 상대적으로 강해졌고, 이는 拓跋珪가 後燕으로부터 자립하려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本稿에서 北魏 道武帝 登國年間 後燕과 北魏의 관계를 복원하였고, 北魏는 後燕의 代北 정책 가운데 반사이익을 얻었고, 자력으로 劉衛辰의 鐵弗部를 정복한 후에야 後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魏書』 「太祖紀」는 처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부터 拓跋部(北魏)가 後燕을 조공국으로 둔 ‘皇帝國’이었으며, 拓跋部和 後燕의 실제 세력관계를 반대로 서술하며 왜곡하였다. 또 前秦이 拓跋部(代)를 정복한 후 영토의 서쪽을 鐵弗部の 군주 劉衛辰에게 다스리라고 한 『魏書』의 기록은 『晉書』, 『魏書』, 『資治通鑑』에 기록된 劉衛辰의 활동 기록을 검토하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拓跋部는 鐵弗部 정복 이후 鐵弗部 정복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前秦의 拓跋部 정복 이전부터 鐵弗部가 拓跋部の 영토 혹은 屬國처럼 粉飾한 것이다. 이는 拓跋부에 충성했고 舊拓跋部の 동쪽을 통치했던 劉庫仁이 실제로 죽기 전까지 前秦의 苻堅에 충성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賀蘭部和 獨孤部는 拓跋부에 의해 강제로 부족(部落)이 해산된 것이 아니라 後燕에 의해 격파되어 後燕의 영토로 遷徙되었고, 拓跋部는 남은 소수의 賀蘭·獨孤 2부의 잔여세력을 어부지리로 얻었을 뿐이었다. 賀蘭部가 수십 部, 獨孤部가 36부를 거느린 세력이었음을 고려하면, 後燕과 拓跋部の 공격을 받아 이산된 諸部는 두 部가 거느리고 있던 수십 부와 36部였다. 즉 賀蘭部和 獨孤部の “離散諸部” 혹은 “散諸部落”은 부족연합체의 해체와 개별 부족으로의 환원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논문은 拓跋部の 멸망부터 北魏의 河北 점령 이전까지 拓跋珪(道武帝)의 초기 기록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음을 밝히고 後燕 중심의 代北 遊牧諸部の 세력 관계와 흥망의 原像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後燕, 慕容垂, 拓跋珪(道武帝), 窟咄과의 계승분쟁, 獨孤部, 賀蘭部, 鐵弗部, 劉衛辰, 參合陂 전투, 부족해산

I. 서론

前秦의 군주 苻堅은 376년 拓跋部(代)를 정복한 후 舊拓跋部를 둘로 나누어 鐵弗部の 수장 劉衛辰과 獨孤部の 수장 劉庫仁에게 통치하도록 하였다. 前秦의 군대가 淝水의 전투에서 東晉의 北府兵에게 패한 후 慕容垂(後燕)를 시작으로 慕容泓(西燕)·姚萇(後秦)·呂光(後涼)·翟氏(翟魏) 등이 독립하여 前秦은 붕괴되었다. 이때 拓跋珪(道武帝)는 拓跋部(代國)의 復國에 성공하였고 獨孤·賀蘭·鐵弗 3部를 정복한 후 後燕을 공략하여 河北 지방을 점령하였다. 『魏書』 「太祖紀」는 이때 道武帝가 什翼犍(昭成帝)의 嫡孫의 자격으로 386년 代王으로 즉위하였으며, 이후 주변의 유목부족 및 後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런데 『晉書』 「苻堅載記」, 『宋書』 「索虜傳」, 『南齊書』 「魏虜傳」, 『資治通鑑』을 검토하면, 前秦의 代國 정복부터 拓跋珪의 즉위까지 서로 상반된 기록이 많다.

서로 다른 北魏와 東晉南北朝의 사료 가운데 어떤 사료를 믿느냐에 따라 北魏初사건의 진실과 해석이 달라진다. ① 前秦에게 패한 후 什翼犍이 漠北에서 죽었는지(『魏書』 「序紀」) 또는 長安으로 끌려갔는지(『晉書』 「苻堅載記」)의 논란, ② 寔君이 아버지 什翼犍을 죽였는지 아니면 拓跋珪가 아버지(什翼犍)을 사로잡고 前秦에 항복했으며 후에 拓跋珪가 蜀地로 유배되었는지의 문제, ③ 代國 멸망 이후 拓跋珪가 있던 장소가 代北 혹은 前秦의 수도 長安인가의 여부이다.¹⁾ ①과 관련되어 拓跋珪가 長安에 끌려가고 蜀에 유배되었다는 『晉書』 「苻堅載記」의 기록을 믿는 견해²⁾와 拓跋珪가 長安에 끌려갔지만 蜀에 유배되지 않았다는 주장³⁾이 제기되었다. 반면 『魏書』

1) 李凭, 「皇權初建」, 『北魏平城時代』,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17~25면; 李凭, 「北魏道武帝早年經歷的問題」,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武漢大學中國三至九世紀研究所 編, 『魏晉南北朝史研究: 回顧與探索-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九屆年會論文集』,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9, 171~177면; 李玉順, 「北魏道武帝早年踪跡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44-6, 2011, 142오른면~146오른면; 孫險峰, 「北魏道武帝早年經歷論考補釋」,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編,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十屆年會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12, 137면.

2) 周一良, 「崔浩國史之獄」, 『魏晉南北朝史札記』, 中華書局, 1985, 346면; 李凭, 「皇權初建」, 『北魏平城時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17~30면(原載, 「道武帝早年經歷考」, 『中國史研究』 1992-1, 1992); 李玉順, 앞의 2011 논문, 142왼면~146오른면; 張俊雷, 「從代到魏拓跋珪復國運動研究」,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2010.5, 11~14면.

3)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36~148면.

「太祖紀」와 列傳의 기록을 긍정하고 拓跋窟咄이 長安에 끌려갔고 拓跋珪는 塞北에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⁴⁾ 『魏書』 등의 사료를 검토하면, 道武帝가 숙부 窟咄과의 계승 분쟁 및 獨孤·賀蘭 2부를 격파하는데 後燕의 군사적 원조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拓跋部가 後燕과 獨孤·賀蘭·鐵弗 諸部 등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들을 이용하는 외교정책에 성공하여 이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⁵⁾ 비해, 처음에 약했던 拓跋部가 後燕의 도움 덕분에 代北을 통일하고 後燕과 맞설 수 있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견해도 있다.⁶⁾

필자는 北朝와 東晉南朝의 史書의 기록이 다른 점에 주목하던 중 『資治通鑑』의 관련 기록이 양자를 비교하고 고증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음을 발견하였다. 사실 이는 『資治通鑑』의 편찬 과정을 이해하면 당연하다. 『資治通鑑』은 단순히 25사에 속하는 歷代 正史를 시간의 순서로 베끼고 단순히 배열한 編年體 史書가 아니라 司馬光이 北宋時代 최고의 사학자 劉攽(漢代史), 劉恕(魏晉 이후), 范祖禹(唐代史) 세 조수의 도움을 받고 이 세 사람이 각 시대를 꼼꼼히 고증하고 正史 이외에 현존하지 않은 사료까지 추가한 새 通史의 성격을 지닌다.⁷⁾ 선행 연구에 따르면 范亨의 『燕書』, 張誼의 『南燕錄』, 王景暉의 『南燕錄』, 遊覽先生の 『南燕書』, 高閭의 『燕志』, 『南燕起居注』, 崔逞의 『燕記』, 封懿의 『燕書』, 韓顯宗의 『燕志』, 杜輔全의

4) 蔣福亞, 「苻堅滅代」, 『北朝研究』 3(1990年下半年刊), 1990; 張金龍, 「拓跋珪“元從二十一人”考」, 『北魏政治與制度論稿』,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02(原載『北朝研究』 1995-1, 1995), 1~9면; 安介生, 「北魏道武帝早年經歷考辨與李凭先生商榷」, 北京: 『民族研究』 2002-4, 2002(K22 魏晉南北朝隋唐史 2002-6, 2002), 28~31면; 張繼昊, 「拓跋珪的崛起與北魏王朝的肇建」, 『從拓跋到北魏-北魏王朝創建歷史的考察』, 臺北: 稻鄉出版社, 2003, 245~252면; 姚宏傑, 「關於道武帝早年身世的若干問題」, 『北京大學學報』 2003-3, 2003, 77원면~82원면.

5) 張繼昊, 「拓跋珪的崛起與北魏王朝的肇建」, 『從拓跋到北魏-北魏王朝創建歷史的考察』, 臺北: 稻鄉出版社, 2003, 245~252면; 王仁磊, 「略論北魏道武帝平定河北策略的制定」,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0-6, 2009, 34원면~34오른면; 張俊雷, 「從代到魏-拓跋珪復國運動研究」,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2010.5, 14~19면.

6) 姚宏傑, 「參合陂之役前燕魏關係略論」, 『淮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1(總第 88期), 2000, 127원면~130오른면;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46~147면. 한편 任愛君은 道武帝가 登國 3년(388) 庫莫奚를 공격한 이유가 後燕의 附庸이었던 拓跋部가 後燕의 명령으로 後燕의 동북 邊境에 있던 庫莫奚 공격에 동원되었다고 보아(任愛君, 「登國三年拓跋珪攻擊松漠諸部的歷史真相」, 殷憲·馬志強, 『北朝研究』 2,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2001, 38~44면) 北魏가 後燕의 속국이었음을 인정하였다.

7) 高國抗 저, 오상훈·이개석·조병한 역, 『중국사학사』 하, 풀빛, 1998, 69~79면.

『燕紀』 등 史書가 편찬되었다.⁸⁾ 이 가운데 范亨의 『燕書』가 『宋史』 「藝文志」에 보이며,⁹⁾ 王景暉의 『南燕錄』, 張詮의 『南燕書』, 高閭의 『燕志』 등이 『新唐書』 「藝文志」에 보인다.¹⁰⁾ 이는 唐宋時代까지 前燕·後燕 등 五燕 史書 일부가 남아있었음을 뜻하며, 司馬光과 세 조수들은 이 史書를 참고하여 기존 史書의 기록을 考證·校訂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추가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資治通鑑』의 기록과 관점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다. 또 『魏書』 「序紀」와 「太祖紀」 등의 기록이 拓跋部の 멸망과 復國 과정의 기록에 오류가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발견하였다.¹¹⁾ 淝水의 전쟁 이후 獨孤·賀蘭·鐵弗·拓跋·庫車 등 代北의 여러 세력들이 前秦 혹은 後燕 등과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 싸우고 견제하는 가운데 이들 세력에 외교적·군사적 영향을 준 세력은 後燕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後燕의 시각에서 380~390년대 代北의 정치적·군사적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拓跋部(北魏)의 건국과정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後燕과 西燕이 자기 편을 拓跋部の 군장에 옹립하려고 개입했음을 밝힌다. 3장에서 後燕이 代北의 강국 獨孤부와 賀蘭部를 攻滅하고 拓跋部가 반사이익을 취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後燕의 屬國이었던 拓跋部가 劉衛辰의 鐵弗부와 漠北의 유목부족들을 통합하여 세력을 키운 후 後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後燕과 대항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논문은 拓跋部の 멸망부터 北魏의 河北 점령 이전까지 拓跋珪(道武帝)의 초기 기록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음을 밝히고 後燕 중심의 代北 遊牧諸部の 세력 관계와 흥망의 原像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8) 高然, 「慕容鮮卑·五燕社會經濟與文化」,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8, 248~249면.

9) 『宋史』 卷204, 「藝文志」 3 史類2·霸史類條, 5166면, “范亨燕書二十卷” 이하 正史類는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름.

10) 『新唐書』 卷58, 「藝文志」 2 乙部史錄·僞史類, 1462면, “范亨燕書二十卷. 王景暉南燕錄六卷. 張詮南燕書十卷. 高閭燕志十卷.”

11) 이 점은 李玉順, 앞의 2011 논문, 142오른면~146오른면 및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35~149면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다.

II. 後燕의 拓跋部 復國 지원과 그 배경

1. 淝水의 전투 이후 代北 유목세력의 각축

淝水의 전투에서 前秦軍이 대패했을 때 慕容垂가 지휘하는 부대만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慕容垂는 苻堅을 모시고 洛陽에 이르렀다. 이때 慕容垂는 燕岱의 巡撫와 墓 참배를 위해 동쪽으로 가겠다며 苻堅의 허락을 구했다. 權翼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苻堅은 이를 허락하였다.¹²⁾ 慕容垂가 384년 洛陽에서 동쪽으로 이르자 滎陽太守 餘蔚과 昌黎鮮卑 衛駒는 慕容垂에게 항복하였다. 慕容垂는 滎陽에서 燕王으로 즉위하였다.¹³⁾ 이후 鄴를 지키던 苻丕를 공격하였다. 苻堅이 385년 慕容冲의 공격을 받아 長安을 탈출하여 五將山으로 달아났으나¹⁴⁾ 姚萇에게 생포되어 살해되었다.¹⁵⁾ 이 소식을 들은 苻丕는 鄴를 버리고 晉陽으로 가서 皇帝로 즉위한 후¹⁶⁾ 關中으

12)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19면, “諸軍悉潰, 惟慕容垂一軍獨全, 堅以千餘騎赴之. 垂子寶勸垂殺堅, 垂不從, 乃以兵屬堅. 初, 慕容暉屯鄆城, 姜成等守漳口, 晉隨郡太守夏侯澄攻姜成, 斬之, 暉棄其衆奔還. 堅收離集散, 比至洛陽, 衆十餘萬, 百官威儀軍容粗備. 未及關而垂有貳志, 說堅請巡撫燕岱, 並求拜墓, 堅許之. 權翼固諫以爲不可, 堅不從. 尋懼垂爲變, 悔之, 遣驍騎石越率卒三千戍鄴, 驃騎張蚝率羽林五千戍並州, 留兵四千配鎮軍毛當戍洛陽.”

13)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條, 3320면, “垂以洛陽四面受敵, 欲取鄴而據之, 乃引兵而東. 故扶餘王餘蔚爲滎陽太守, 及昌黎鮮卑衛駒各帥其衆降垂. 垂至滎陽, 群下固請上尊號, 垂乃依晉中宗故事, 稱大將軍·大都督·燕王, 承製行事, 謂之統府. 群下稱臣, 文表奏誥, 封拜官爵, 皆如王者. 以弟德爲車騎大將軍, 封范陽王; 兄子楷爲征西大將軍, 封太原王; 翟斌爲建義大將軍, 封河南王; 餘蔚爲征東將軍, 統府左司馬, 封扶餘王; 衛駒爲鷹揚將軍, 慕容鳳爲建策將軍. 帥衆二十餘萬, 自石門濟河, 長驅向鄴.”

14)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28면, “於是遣衛將軍楊定擊冲於城西, 爲冲所擒. 堅爾懼, 付宏以後事, 將中山公詵·張夫人率騎數百出如五將, 宣告州郡, 期以孟冬救長安. 宏尋將母妻宗室男女數千騎出奔, 百僚逃散. 慕容冲入據長安, 縱兵大掠, 死者不可勝計.”; 『十六國春秋輯補』卷38, 「前秦錄」8, 302~303면.

15)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28~2929면, “堅至五將山, 姚萇遣將軍吳忠圍之. 堅衆奔散, 獨侍御十數人而已. 神色自若, 坐而待之, 召宰人進食. 俄而忠至, 執堅以歸新平, 幽之於別室. 萇求傳國璽於堅曰: ‘萇次膺符曆, 可以爲惠.’ 堅瞋目叱之曰: ‘小羌乃敢干逼天子, 豈以傳國璽授汝羌也. 圖緯符命, 何所依據? 五胡次序, 無汝羌名. 違天不祥, 其能久乎! 璽已送晉, 不可得也.’ 萇又遣尹緯說堅, 求爲堯舜禪代之事. 堅責緯曰: ‘禪代者, 聖賢之事. 姚萇叛賊, 奈何擬之古人!’ 堅既不許萇以禪代, 罵而求死, 萇乃縊堅於新平佛寺中, 時年四十八. 中山公詵及張夫人並自殺. 是歲, 太元十年也.”; 『十六國春秋輯補』卷38, 「前秦錄」8, 303~304면.

로 돌아가서 後秦과 결전을 벌였다. 이후 後秦과 後涼·西涼·北涼·南涼·仇池 등이 독립하였다.

이때 代北지역은 前秦이 拓跋部를 정복한 후 黃河 동쪽은 劉庫仁, 서쪽은 劉衛辰이 兩分하여 통치하였다. 『魏書』에서는 “庫仁盡忠奉事, 不以興廢易節, 撫納離散, 恩信甚彰.”¹⁷⁾라고 하여 拓跋部(代)에 대한 劉庫仁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리어 劉庫仁이 代國 멸망 후에 苻堅의 封爵을 받고 苻堅에 충성하였다. 그는 苻堅이 淝水之戰에서 패배한 383년 이후 拓跋珪를 추대하거나 代國을 復國하려는 행동이 없었고, 반대로 苻堅을 도와 慕容垂의 군대를 공격하였다.¹⁸⁾ 이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魏書』 「太祖紀」에서 劉庫仁의 死期를 道武帝 7년(383)條에 기록했지만,¹⁹⁾ 『資治通鑑』에서는 東晉 孝武帝 太元 9년(384)년의 기사로 수록하였는데,²⁰⁾ 이는 『魏書』 「太祖紀」에서 기록한 劉庫仁이 살해된 다음 해이다. 같은 해 十月 劉庫仁은 前秦의 長樂公 苻丕가 지키는 鄴를 구하기 위해 鴈門·上谷·代郡 3郡의 군대를 징발하여 繁峙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後燕 太子太保 慕容(慕容)句의 아들 文과 零陵公 慕容(慕容)虔의 아들 常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劉庫仁의 아우 劉頭眷(劉眷)이 部衆을 거느렸다.²¹⁾ 이처럼 『魏書』와 『資治通鑑』의 기록이 다르지만, 후자의

16) 『晉書』卷115, 「苻丕載記」, 2941~2942면, “堅敗歸長安, 丕爲慕容垂所逼, 自鄴奔枋頭. 堅之死也, 丕復入鄴城, 將收兵趙魏, 西赴長安. 會幽州刺史王永·平州刺史苻冲頻爲垂將平規等所敗, 乃遣昌黎太守宋敞焚燒和龍·薊城宮室, 率衆三萬進屯壺關, 遣使招丕. 丕乃去鄴, 率男女六萬餘口進如潞川. 驃騎張蚝·竝州刺史王騰迎之, 入據晉陽, 始知堅死間, 舉哀于晉陽, 三軍縞素. 王永留苻冲守壺關, 率騎一萬會丕, 勸稱尊號, 丕從之, 乃以太元十年僭即皇帝位于晉陽南. 立堅行廟, 大赦境內, 改元曰太安. 置百官, 以張蚝爲侍中·司空, 封上黨郡公; 王永爲使持節·侍中·都督中外諸軍事·車騎大將軍·尚書令, 進封清河公; 王騰爲散騎常侍·中軍大將軍·司隸校尉·陽平郡公; 苻冲爲左光祿大夫·尚書左僕射·西平王; 俱石子爲衛將軍·濮陽公; 楊輔爲尚書右僕射·濟陽公; 王亮爲護軍將軍·彭城公; 強益耳·梁暢爲侍中, 徐義爲吏部尚書, 竝封縣公. 自餘封授各有差.”

17) 『魏書』卷23, 「劉庫仁傳」, 605면, “庫仁盡忠奉事, 不以興廢易節, 撫納離散, 恩信甚彰.”

18)李玉順, 앞의 2011 논문, 144오른면.

19) 『魏書』卷2, 「太祖紀」七年條, 20면, “七年, 冬十月, 苻堅敗于淮南. 是月, 慕容文等殺庫仁, 庫仁弟眷攝國部.”

20)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八月條, 3333면, “秦幽州刺史王永求救於振威將軍劉庫仁, 庫仁遣其妻兄公孫希帥騎三千救之, 大破平規於薊南, 乘勝長驅, 進據唐城, 與慕容麟相持.”

21)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十月條, 3335면, “劉庫仁聞公孫希已破平規, 欲大舉兵以救長樂公丕, 發雁門·上谷·代郡兵, 屯繁峙. 燕太子太保與句之子文·零陵公慕容虔之子常時在庫仁所, 知三郡兵不樂遠所, 因作亂, 夜, 攻庫仁, 殺之, 竊其駿馬奔燕. 公孫希之衆聞亂自潰, 希奔

기록이 사실에 부합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魏書』 「太祖紀」의 道武帝 元年(377)부터 9년(385)까지 劉庫仁의 기록은 다른 열전과 기타 史籍의 관련 기록과 모순되며, 이는 「太祖紀」의 劉庫仁 기록이 옳지 않음을 시사한다.²²⁾

또 李玉順에 따르면, 『魏書』의 모든 기록에서 道武帝 2년(378)부터 8년(384)까지 拓跋珪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고, 劉顯의 謀害부터 기록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²³⁾ 孫險峰도 李玉順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拓跋珪가 代王에 즉위하기 전 『魏書』 「太祖紀」에는 5條(冒頭, 元年, 七年, 八年, 九年)의 기록을 검토하여 拓跋珪가 당시 獨孤部 등 代北에 없었음을 실증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拓跋珪가 6세에 “獨孤部로 轉幸”하였는데,²⁴⁾ 魏收는 전후 두 개의 “獨孤部”를 함께 이어서 拓跋部가 줄곧 獨孤部에서 생활했다는 假象을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그가 장기간 漠北에 없었음을 덮기 위한 증거였다. ② 第二條에서 劉庫仁이 拓跋珪를 위해 부흥하는 재능이 있었다고 기록했는데,²⁵⁾ 6세의 아동이 충기가 있다고 해도 뛰어난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헌의 내용은 拓跋珪가 장기간 獨孤部に 체류한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第三條는 七年(383) 十月 苻堅의 淝水之戰 패배와 劉庫仁의 살해,²⁶⁾ 第四條는 八年(384) 慕容忠·姚萇·慕容垂가 독립한 사실²⁷⁾을 각각 다루었다. 모두 拓跋珪와 상관 없는 사건이다. 특히 후자의 시기에 拓跋珪는 이미 13세이며, 완전히 종군하여 전쟁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漠北 草原에서 활동한 흔적이 없다. ④ 第五條는 劉顯이 劉眷(劉頭眷)을 죽였고, 拓跋珪가 獨孤部에서 賀蘭部로 옮긴 일을 기록하

翟眞. 庫仁弟頭眷代領庫仁部衆.” 『魏書』에서 ‘慕容’文이라고 기록한데 비해 『資治通鑑』에서는 ‘慕容’文으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양자의 사료에서 姓이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非漢族 胡人의 姓名을 축약하거나 달리 音寫하여 표기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양자를 병기한다.

22) 李玉順, 앞의 2011 논문, 144오른면.

23) 李玉順, 앞의 2011 논문, 144왼면~144오른면.

24) 『魏書』卷2, 「太祖紀」 19면, “年六歲, 昭成崩. 苻堅遣將內侮, 將遷帝於長安, 既而獲免. 語在燕鳳傳. 堅軍既還, 國衆離散. 堅使劉庫仁·劉衛辰分攝國事. 南部大人長孫嵩及元他等, 盡將故民南依庫仁, 帝於是轉幸獨孤部.”

25) 『魏書』卷2, 「太祖紀」 元年條, 19면, “元年, 葬昭成皇帝於金陵, 營梓宮, 木柿盡生成林. 帝雖沖幼, 而嶷然不羣. 庫仁常謂其子曰: 帝有高天下之志, 興復洪業, 光揚祖宗者, 必此主也.”

26) 『魏書』卷2, 「太祖紀」 七年條, 20면, “七年, 冬十月, 苻堅敗于淮南. 是月, 慕容文等殺庫仁, 庫仁弟眷攝國部.”

27) 『魏書』卷2, 「太祖紀」 八年條, 20면, “八年, 慕容暄弟沖僭立. 姚萇自稱大單于·萬年秦王. 慕容垂僭稱燕王.”

었다.²⁸⁾ 이는 拓跋珪가 代國을 重建하기 몇 개월 전의 사정이며, 拓跋珪의 행동노선(공간)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拓跋珪의 代國 重建과 궤를 함께 한다. 이것과 위의 문헌 기록은 완전히 다르며, 갑자기 돌출한 느낌이 든다. 拓跋珪가 만난 곳은 獨孤部和 賀蘭部 두 개 지점이며, 또 牛川에 가서 代王으로 즉위하기 전 짧은 기간이다. 초원지역은 광활하여 행동노선도 이렇게 좁고 단일할 수 없다. 『魏書』에서 두 部落을 언급한 것은 拓跋珪가 北歸할 때 단기간에 두 부족이 경유지였음을 말했을 뿐이다.²⁹⁾ 李玉順과 孫險峰의 주장은 拓跋珪가 代王으로 즉위하기 전 拓跋珪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여기에 첨언할 사항은 ‘登國’이란 연호 이전에 元年부터 九年까지 구체적인 年號의 이름이 없는 紀年으로 표기된 사실이다. 『魏書』「序紀」의 拓跋部 君長들의 기록을 보면, 재위시기를 元年, 二年, 三年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그후 什翼犍이 처음으로 ‘建國’³⁰⁾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登國 연간 이전 연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37년에 연호 없이 ‘元年’으로 기록한 점이 이상하다. 게다가 拓跋珪가 拓跋部の 수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元年(377)은 拓跋部가 前秦에 망한 다음 해인데, 什翼犍(昭成帝)을 장사지냈다고 기록하였다.³¹⁾ 이 기사에서 장례의 주체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拓跋珪는 만 6세에 불과하였다. 이 장례식에 참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劉庫仁은 아들에게 拓跋珪가 帝業을 부흥할만한 인물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拓跋珪가 拓跋部の 수장이 될 것이라는 복선처럼 보인다. 前秦에게 망한 다음 해 什翼犍의 장례식을 시작으로 기록한 10년에 年號없이 元年, 二年으로 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拓跋珪의 행적은 九年(385)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拓跋珪가 拓跋部の 君長으로 옹립되기 전인 9년 1개월 동안 代北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慕容垂가 384년 滎陽에서 燕王을 자칭한 후 河北 각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河北의 前秦 세력은 後燕의 군주 慕容垂에 저항하였다. 예컨대

28) 『魏書』卷2, 「太祖紀」九年條, 20면, “九年, 庫仁子顯殺睿而代之, 乃將謀逆. 商人王霸知之, 履帝足於衆中, 帝乃馳還. 是時故大人梁蓋盆子六眷, 爲顯謀主, 盡知其計, 密使部人穆崇馳告. 帝乃陰結舊臣長孫犍·元他等. 秋八月, 乃幸賀蘭部. 其日, 顯果使人求帝, 不及. 語在獻明太后傳.”

29)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42~144면.

30) 『魏書』卷1, 「序紀」昭成帝建國元年條, 12면, “十一月, 帝卽位於繁峙之北, 時年十九, 稱建國元年.”

31) 『魏書』卷2, 「太祖紀」九年條, 19면, “元年, 葬昭成皇帝於金陵, 營梓宮, 木柿盡生成林. 帝雖冲幼, 而嶷然不羣. 庫仁常謂其子曰: 帝有高天下之志, 興復洪業, 光揚祖宗者, 必此主也.”

前秦의 幽州刺史 王永과 平州刺史 苻冲은 後燕을 공격하였다. 慕容垂는 平規를 보내 王永을 공격하게 하였고 前秦의 군대를 격파하였다.³²⁾ 이에 王永은 劉庫仁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劉庫仁은 公孫希를 보내 平規의 군대를 薊 남쪽에서 대파하였다.³³⁾ 劉庫仁은 公孫希의 승리 소식을 듣고 苻丕를 돕기 위해 雁門·上谷·代 3郡의 郡兵을 징발했으나 慕輿文(慕容文)·慕輿常(慕容常)에게 살해되었다.³⁴⁾ 일련의 사건에서 劉庫仁이 淝水의 전투 이후 독립하거나 拓跋部の 復國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前秦에 충성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前秦의 군주 苻堅이 이전에 劉庫仁에게 妻 公孫氏와 물자를 하사하였고, 자신을 알현한 劉庫仁에게 振威將軍의 벼슬을 주는³⁵⁾ 등 후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淝水의 전쟁에서 패한 前秦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前秦의 舊臣 慕容垂(後燕)·慕容泓(西燕)·姚萇(後秦)·呂光(後涼)·翟氏(翟魏)가 前秦의 군주 苻堅을 배신하고 독립했던 것과 달리 劉庫仁은 여전히 前秦에 충성하였다. 따라서 拓跋珪를 君長으로 옹립하지 않은 劉庫仁이 拓跋珪가 拓跋部の 復國을 완성할 인물이라고 말한 『魏書』의 기록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아래는 劉庫仁 다음에 獨孤部の 수장이 된 劉眷 시기의 일이다.

“① 庫仁의 弟 眷은 劉庫仁의 뒤를 이어 國事를 관장하였다. 白部大人 紇佛이 叛하였지만 眷은 자력으로 토벌할 수 없었다. 이에 苻堅[前秦]의 并州刺史 張蚝를 끌어들여 [紇佛]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② [劉]眷은 또 賀蘭部를 善無에서 격파하였고, 蠕蠕 別帥 肺渥도 意親山에서 공격해 이겨서 牛羊 數十萬 頭를 얻었다. ③ [劉]眷의 第二子 羅辰은 性이 機警하고 智謀가 있었는데 [劉]眷에게 ‘근래에 行兵하는데 향하는 곳에 敵이 없고 心腹의 우환이 있으니 원컨대 일찍 도

32)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七月條, 3330년, “秦幽州刺史王永·平州刺史苻冲帥二州之衆以擊燕. 燕王垂遣寧朔將軍平規擊永, 永遣昌黎太守宋敞逆戰於范陽, 敞兵敗, 規進據薊南.”

33)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八月條, 3333년, “秦幽州刺史王永求救於振威將軍劉庫仁, 庫仁遣其妻兄公孫希帥騎三千救之, 大破平規於薊南, 乘勝長驅, 進據唐城, 與慕容麟相持.”

34) 『魏書』卷23, 「劉庫仁傳」, 605년, “後慕容垂圍苻丕于鄴, 又遣將平規攻堅幽州刺史王永于薊, 庫仁自以受堅爵命, 遣妻兄公孫希率騎三千, 助永擊規, 大破之, 阮隄降卒五千餘人. 乘勝長驅, 進據唐城, 與垂子麟相持. 庫仁聞希破規, 復將大舉以救丕. 發雁門·上谷·代郡兵, 次於繁峙. 先是, 慕容文等當徙長安, 遁依庫仁部, 常思東歸, 其計無由. 至是役也, 知人不樂, 文等乃夜率三郡人, 攻庫仁. 庫仁匿於馬廄, 文執殺之. 乘其駿馬, 奔慕容垂. 公孫希聞亂, 自唐城走於丁零.”

35) 『魏書』卷23, 「劉庫仁傳」, 605년, “苻堅賜庫仁妻公孫氏, 厚其資送. 庫仁又詣堅, 加庫仁振威將軍.”

모하기 바랍니다’라고 간언하였다. [劉]眷은 ‘그게 누구냐?’라고 물으니 羅辰은 ‘從兄 顯은 잔인한 사람이니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난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劉]眷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④ 그후 牛川으로 徙牧하였는데, 庫仁의 子 顯은 과연 [劉]眷을 죽이고 대신 자립하였다. [劉]羅辰은 太祖[拓跋珪]에게 달아났다. 이 일은 外戚傳에 기록되었다.”³⁶⁾

위의 인용문에서 ① 劉眷의 권력 장악은 太元 9년(384)의 일이고,³⁷⁾ ②~④는 太元 10년(385)³⁸⁾에 각각 발생하였다. ①에서 劉庫仁의 아우 劉眷이 통치권을 확보한 후 白部の 반란을 토벌하지 못하고 前秦의 도움을 받아 겨우 격파했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 劉眷이 賀蘭部和 蠕蠕(柔然)을 격파하였다. 白部는 劉庫仁의 獨孤部和 함께 前秦의 공격을 막았던 사실³⁹⁾에서 알 수 있듯이 拓跋部に 附屬된 부족이었으며, 아마도 劉庫仁의 管理 영역에 있었을 것이다. 또 賀蘭部の 賀訥은 劉庫仁이 관리하는 舊拓跋部の 東部를 總攝하는 大人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역시 劉庫仁의 치하에 있었다.⁴⁰⁾ 요컨대 ①~②에서 劉庫仁 사후 劉庫仁이 管理하던 黃河 以東의 代北 지역에 있던 유목부족들은 자립하여 獨孤部の 수장 劉眷의 통제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劉眷은 白部·賀蘭·柔然 등 유목부족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또 ①에서 劉眷이 前秦의 并州刺史 張蚝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獨孤部가 여전히 前秦에 충성

- 36) 『魏書』卷23, 「劉庫仁傳附眷傳」, 605~606년, “庫仁弟眷, 繼攝國事. 白部大人黎佛叛, 眷力不能討. 乃引苻堅竝州刺史張蚝擊佛, 破之. 眷又破賀蘭部于善無, 又擊蠕蠕別帥肺渥于意親山, 破之, 獲牛羊數十萬頭. 眷第二子羅辰, 性機警, 有智謀, 謂眷曰: ‘比來行兵, 所向無敵, 心腹之疾, 願早圖之.’ 眷曰: ‘誰也?’ 曰: ‘從兄顯, 忍人也, 爲亂非旦則夕耳.’ 眷不以為意. 其後, 徙牧于牛川, 庫仁子顯, 果殺眷而代立. 羅辰奔太祖, 事在外戚傳.”
- 37)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十月條, 3335년, “劉庫仁聞公孫希已破平規, 欲大舉兵以救長樂公丕, 發雁門·上谷·代郡兵, 屯繁峙. 燕太子太保與句之子文·零陵公慕輿度之子常時在庫仁所, 知三郡兵不樂遠所, 因作亂, 夜, 攻庫仁, 殺之, 竊其駿馬奔燕. 公孫希之衆聞亂自潰, 希奔翟真. 庫仁弟頭眷代領庫仁部衆.”
- 38)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秋七月條, 3349~3350년, “鮮卑劉頭眷擊破賀蘭部于善無, 又破柔然于意親山. 頭眷子羅辰言于頭眷曰: ‘比來行兵, 所向無敵. 然心腹之疾, 願早圖之!’ 頭眷曰: ‘誰也?’ 羅辰曰: ‘從兄顯, 忍人也, 必將爲亂.’ 頭眷不聽. 顯, 庫仁之子也. 頃之, 顯果殺頭眷自立.”
- 39) 『魏書』卷1, 「序紀」昭成帝建國三十九年十一月條, 16년, “冬十一月, 白部·獨孤部禦之, 敗績.”
- 40) 『魏書』卷83上, 「外戚·賀訥傳」, 1812년, “會苻堅使劉庫仁分攝國事, 於是大祖還居獨孤部. 訥總攝東部爲大人, 遷居大寧, 行其恩信, 衆多歸之, 倖於庫仁.”

하며 前秦의 통치를 받는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에서 劉庫仁의 아들 劉顯이 劉眷을 살해하고 獨孤部の 수장이 되었으며, 劉眷의 아들 劉羅辰은 拓跋珪에게 귀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獨孤部에서 계승분쟁이 발생하여 지배층이 분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劉顯은 여러 부족을 정복하고 “劉顯의 땅이 넓고 병력이 강하여 北方에서 가장 뛰어났다”⁴¹⁾고 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었다. 즉 최강의 獨孤部 수장 劉顯이 10대에 불과한 拓跋珪에게 복종하거나 代北지역의 패권을 내줄 리가 없었다.

2. 拓跋部の 계승분쟁: 後燕의 拓跋珪 올림과 西燕의 拓跋窟咄 올림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384~385년 代北 지역의 여러 유목부족은 獨孤部の 통치에서 저항하였으며, 獨孤部에서 내분이 발생하였다. 代北 외부의 상황도 복잡하였다. 이때 代北 남쪽의 并州는 西燕이, 冀州는 後燕이 각각 차지하며, 後燕은 河北에 산재한 前秦의 잔여세력과 싸우고 있었다. 西燕과 後燕은 慕容氏가 세운 나라였지만 사이는 좋지 않았다. 정통성 계승 문제 때문이다. 당시 前秦의 장안에 억류된 前燕의 亡主 慕容暉는 前秦의 苻堅이 淝水의 전쟁에서 패한 후 아우 慕容泓이 馬牧鮮卑를 모아 前秦에 반란을 일으키자 각 지방에 있었던 諸弟와 宗人들에게 起兵하라고 부추겼다.⁴²⁾ 당시 舊前燕 세력은 慕容泓과 慕容垂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각각 결집하였는데, 慕容暉는 몰래 慕容泓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죽으면 慕容泓이 帝位에 오르라고 당부하였다. 후계자로 낙점되어 고무된 慕容泓은 長安으로 진격하는 와중에 연호를 燕興으로 바꾸었다.⁴³⁾ 慕容暉는 前秦의 수도 長安에서 鮮卑 千餘人을 모아 前秦의 군주 苻堅을 암살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誅殺되었다.⁴⁴⁾ 長安으로 진격하던 慕容

41)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8면, “劉顯地廣兵強, 雄於北方.”

42)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19면, “慕容暉弟燕故濟北王泓先爲北地長史, 聞垂攻鄴, 亡命奔關東, 收諸馬牧鮮卑, 衆至數千, 還屯華陰. 慕容暉乃潛使諸弟及宗人起兵於外.”

43)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21면, “而暉密遣使者謂泓曰: ‘今秦數已終, 長安怪異特甚, 當不復能久立. 吾既籠中之人, 必無還理. 昔不能保守宗廟, 致令傾喪若斯, 吾罪人也, 不足復顧吾之存亡. 社稷不輕, 勉建大業, 以興復爲務. 可以吳王爲相國, 中山王爲太宰·領大司馬, 汝可爲大將軍·領司徒, 承制封拜. 聽吾死間, 汝便即尊位.’ 泓於是進向長安, 改年曰燕興. 是時鬼夜哭, 三旬而止.”

44)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24~2925면, “初, 暉之遣諸弟起兵於外也, 堅防守甚嚴, 謀應之而無

泓은 부하 高蓋와 宿勤崇 등에게 살해된 후 慕容冲이 그 뒤를 이었다.⁴⁵⁾ 이후 慕容冲도 살해되고 이어서 옹립된 慕容靚과 慕容望, 慕容忠도 살해된 후 慕容永이 즉위하였다. 이 집단을 西燕이라고 한다. 西燕은 현재의 山西省 일대를 지배하며 394년 망할 때까지 河北 일대를 지배한 慕容垂의 後燕과 대립하였다.⁴⁶⁾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後燕은 자기의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했다. 西燕·前秦·東晉은 後燕에 줄곧 적대적이었고 翟魏는 항복과 자립을 반복했다. 동·남·서 3면의 적대세력에 둘러싸인 後燕은 북쪽의 代北 지역의 유목부족 가운데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했다. 당시 代北을 지배하던 獨孤部가 親前秦, 抗燕의 외교를 취하는 한 後燕에게 위협이 되었다.⁴⁷⁾ 384년 丁零의 翟眞, 劉庫仁의 武將 公孫希, 前秦의 幽州刺史 王永의 부하 宋敞, 前秦의 皇族 苻丕의 부하 光祚 등이 연합하여 慕容垂를 공격하니 後燕은 잠시 수세에 몰렸고, 이를 틈타 잠시 慕容垂에 복속했던 河北 각지의 漢人豪族들도 慕容垂에 반기를 들었다. 後燕은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상황을 반전시켰다.⁴⁸⁾ 게다가 獨孤部の 수장 劉庫仁이 피살된 사건도 반전에 기여하였다.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獨孤部가 ‘관리’하던 白部·賀蘭部·柔然이 獨孤部に 반기를 들고 계승분쟁으로 獨孤部の 지배층이 분열된 상황을 이용하면 後燕이 代北에 우호세력을 부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後燕의 慕容垂는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拓跋珪를 拓跋部の 수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代北에 자신의 우호세력을 부식하고 獨孤部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 河北에서 前秦의 잔여세력과 漢人豪族, 丁零 翟氏 세력(翟魏)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後燕의 군주 慕容垂에게 代北의 안정과 지지는 매우 중요했다. 『南齊書』 「魏虜傳」에 따르면, 慕容垂가 後燕을 세운

因。時鮮卑在城者猶有千餘人，暉乃密結鮮卑之衆，謀伏兵請堅，因而殺之。令其豪帥悉羅騰·屈突鐵侯等潛告之曰：‘官今使侯外鎮，聽舊人悉隨，可於某日會集某處。’鮮卑信之。北部人突賢與其妹別，妹爲左將軍竇衝小妻，聞以告衝，請留其兄。衝馳入白堅，堅大驚，召騰問之，騰具首服。堅乃誅暉父子及其宗族，城內鮮卑無少長及婦女皆殺之。”

45)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21~2922면, “泓謀臣高蓋·宿勤崇等以泓德望後冲, 且持法苛峻, 乃殺泓, 立冲爲皇太弟, 承制行事, 自相署置。”

46) 後燕과 西燕의 관계는 劉玉山·劉偉航, 「十六國時期慕容西燕·後燕幾個問題的再探討」, 『東南文化』2007-1(總第195期), 2007, 65원면~70오른면 참조.

47) 姚宏傑, 앞의 2000 논문, 128오른면; 李玉順, 앞의 2011 논문, 144오른면.

48) 高然, 「後燕與西燕的并立」,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8, 97~98면. 이하 ‘2018a’로 약칭

이후 拓跋珪가 拓跋部로 돌아와서 그 부락을 거느렸고, 후에 점점 강성해졌다.⁴⁹⁾ 즉 拓跋珪는 前秦의 拓跋部 정복 이후 代北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前秦의 수도 長安에 있다가 前秦으로부터 독립한 慕容垂의 휘하에 있었다. 慕容垂의 허락 없이 拓跋珪가 慕容垂를 떠난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拓跋珪는 慕容垂의 후원 하에 舊拓跋部가 있던 獨孤部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孫險峰은 太元 10년 七月 後燕의 수도 中山을 출발하여 약 15일(14.4일) 후 獨孤部에 도착하였으며, 약 330km의 거리를 하루에 75km의 속도로 獨孤部에서 賀蘭部까지 약 6일(5.25일)만에 도착했다고 추정하였다.⁵⁰⁾ 이처럼 짧은 시간에 움직인 것은 舊拓跋部를 장악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後燕의 군주 慕容垂와 사이가 나뉘던 西燕의 군주 慕容永이 자신의 휘하에 있었던 窟咄을 拓跋部の 군장으로 옹립하려고 하였다. 즉 拓跋部에 親西燕派를 심으려고 한 것이다(혹은 영토확장을 위해 新興‘太守’ 窟咄을 파견했을 수도 있다). 새로 재건될 拓跋部の 君長 자리를 둔 계승분쟁은 『魏書』 「太祖紀」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처음에 帝의 叔父 窟咄은 苻堅에 의해 長安으로 옮겨졌다. 후에 慕容永을 따랐으며, [慕容]永은 窟咄을 新興太守에 임명하였다. 八月, 劉顯은 弟 亢泥를 보내 窟咄을 맞아들였고 군대를 보내 窟咄을 따르도록 하여 拓跋部の 南境으로 진격하여 다가왔다. 이때 諸部는 騷動하고, 人心은 형세를 살피며 망설였다. 帝의 左右 于桓 등은 諸部人과 모의하여 窟咄에 호응하기로 역모하였다. 일이 누설되자 造謀者 5人을 죽였고 나머지는 불문에 부쳤다. 帝는 內難을 걱정하여 북쪽으로 陰山을 넘어 賀蘭部로 갔고 험한 山에 의지하여 지켰다.”⁵¹⁾

위의 인용문에서는 拓跋珪의 숙부 窟咄이 西燕의 군주 慕容永의 신하로 平城에서 가까운 新興太守에 임명되었다가 獨孤部の 劉顯이 劉亢泥를 보내 窟咄을 영입하여 拓跋部の 군장으로 옹립하려고 하였음을 기술하였다. 당시 西燕은 현재의 山西省에

49) 『南齊書』卷57, 「魏虜傳」, 983면, “堅敗, 子珪, 字涉圭, 隨舅慕容垂據中山, 還領其部, 後稍彊盛.”
50)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45~146면.

51) 『魏書』卷2, 「太祖紀」登國元年條, 20면, “初, 帝叔父窟咄爲苻堅徙于長安, 因隨慕容永, 永以爲新興太守. 八月, 劉顯遣弟亢泥迎窟咄, 以兵隨之, 來逼南境. 於是諸部騷動, 人心顧望. 帝左右于桓等, 與諸部人謀爲逆以應之. 事泄, 誅造謀者五人, 餘悉不問. 帝慮內難, 乃北踰陰山, 幸賀蘭部, 阻山爲固.”

해당하는 9郡(上黨·太原·樂平·新興·雁門·西河·平陽·河東·建興)을 점유하였는데,⁵²⁾ 窟咄이 9명에 불과한 太守에 임명되었음을 보면 西燕의 군주 慕容永의 신임을 받았거나 西燕 안에서 정치적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 新興郡은 西燕의 최북단인 雁門郡 남쪽에 있었지만 당시 代北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窟咄은 신속하게 拓跋珪가 있는 代北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 이때 拓跋珪의 측근인 于桓 등이 諸部の 사람들과 내응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于桓 등 5인이 살해되었다. 최강의 獨孤部的 지원을 받아 西燕의 新興太守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진격하는 窟咄의 위세 때문에 拓跋珪의 측근조차 拓跋珪 대신 窟咄을 선택한 것이다. 수세에 몰린 拓跋珪는 陰山을 넘어 賀蘭部로 도망갔다. 『資治通鑑』에 따르면, 이때 近侍官인 幢將 莫題 등이 窟咄에 내응하였다. 拓跋珪는 穆崇의 고발로 于桓 등 5인을 죽였고 莫題 등 7姓은 불문에 부쳤다.⁵³⁾ 7姓은 7개 혈연 집단으로 해석되며, 당시 拓跋珪에 반대하고 窟咄에 호응하는 세력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魏書』 「太祖紀」에서는 窟咄만 언급하였으나, 같은 해 寔君의 아들 烏渥도 무리를 모아 자립하려고 하였고 部衆 700餘家を 거느린 長孫嵩도 烏渥에 귀속하려고 하였다. 烏渥은 자립을 포기하고 拓跋珪에 귀속하였다.⁵⁴⁾ 미수에 그쳤지만, 帝室十姓의 하나인 長孫氏의 우두머리 長孫嵩은 拓跋珪보다 烏渥을 옹립하려고 할 정도로 拓跋珪의 권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측근들마저 배신할 정도로 拓跋珪의 권력기반은 미약했다. 이때 拓跋珪는 外朝大人 安同을 後燕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⁵⁵⁾

52) 西燕의 강역과 지방행정구역은 魏俊傑, 『十六國疆域與政區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18, 305~309면 참조.

53)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68면, “初, 秦滅代, 遷代王什翼犍少子窟咄於長安, 從慕容永東徙, 永以窟咄爲新興太守. 劉顯遣其弟亢泥迎窟咄, 以兵隨之, 逼魏南境, 諸部騷動. 魏王珪左右于桓等與部人謀執珪以應窟咄, 幢將代人莫題等亦潛與窟咄交通. 桓舅穆崇告之, 珪誅桓等五人, 莫題等七姓悉原不問.”

54) 『魏書』 卷25, 「長孫嵩傳」, 643면, “時寔君之子, 亦聚衆自立, 嵩欲歸之. 見於烏渥, 稱逆父之子, 勸嵩歸太祖. 嵩未決, 烏渥回其牛首, 嵩僂俛從之.”;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51면, “故南部大人長孫嵩帥所部七百餘家叛顯, 將奔五原. 時拓跋寔君之子渥亦聚衆自立, 嵩欲歸之; 烏渥謂嵩曰: ‘逆父之子, 不足從也. 不如歸珪.’ 嵩從之. 久之, 劉顯所部有亂, 故中部大人庾和辰奉賀氏奔珪.”

55)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68면, “珪懼內難, 北踰阻山, 復依賀蘭部, 遣外朝大人遼東安同求救於燕, 燕主垂遣趙王麟救之.”

위에서 살펴본 拓跋珪와 窟咄의 계승분쟁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後燕·西燕·獨孤部는 재건될 拓跋部에 자기세력을 부식하여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西燕의 慕容永과 獨孤部の 劉顯이 지원하는 窟咄이 拓跋部の 君長이 될 경우 拓跋部가 敵國인 西燕이나 獨孤部の 영향을 받는 屬國으로 전락하고 後燕은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 西燕 - 拓跋部 - 獨孤部로 이어진 적대국들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 남쪽의 東晉과 翟魏를 포함하면, 사실상 바방의 적들로 포위되는 형국이었다. 게다가 後燕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賀蘭部の 賀染干이 拓跋部の 北部를 공격하자 北部大人 叔孫普洛와 烏丸은 劉衛辰에게 도망갔다.⁵⁶⁾ 이에 拓跋珪는 더욱 열세에 몰렸다. 後燕의 趙王 慕容麟(慕容賀麟)⁵⁷⁾의 군대가 拓跋部와 합류한 후에야 拓跋珪는 窟咄을 겨우 물리칠 수 있었다. 패한 窟咄은 劉衛辰에게 도망갔으나 살해되었다. 拓跋部の 계승분쟁을 해결한 慕容麟(慕容賀麟)은 後燕의 수도 中山으로 귀환하였다.⁵⁸⁾

요컨대 拓跋珪는 拓跋部の 君長으로 옹립될 때 部衆의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窟咄이 拓跋部 君長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승분쟁을 일으키자 西燕·獨孤部·賀蘭部の 삼면 공격을 받았다. 『魏書』卷2「太祖紀」登國二年條에서는 拓跋珪가 登國2년(387) 安同을 보내 慕容垂에게 “徵兵”하였다고 慕容垂가 아들 慕容賀麟(慕容麟)의 군대를 보내 만났다고 기록하였다.⁵⁹⁾ 그러나 이는 北魏의 시각일 뿐 後燕의 구원병은 拓跋部(北魏)의 “徵兵”이 아니라 강적에 둘러싸인 拓跋部를 구해 세력균형을 취하려는 後燕의 외교전략에 따른 파병이었다.⁶⁰⁾ 後燕은 西燕의 지지를 받고 獨孤部

56) 『魏書』卷15, 「昭成子孫·窟咄傳」, 385면, “慕容垂遣子賀麟步騎六千以隨之. 安同與垂使人蘭紇俱還, 達牛川, 窟咄兄子意烈捍之. 安同乃隱藏於商賈囊中, 至暮乃入空井, 得免, 仍奔賀麟. 軍既不至, 而稍前逼. 賀染干陰懷異端, 乃爲窟咄來侵北部. 人皆驚駭, 莫有固志. 於是北部大人叔孫普洛節及諸烏丸亡奔衛辰.”

57) 『晉書』와 『資治通鑑』에서는 慕容麟이라고 표기하는데 비해 『魏書』에서는 慕容賀麟이라고 표기하였다. 양자를 다른 인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양자를 병기한다.

58)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70면, “燕趙王麟軍未至魏, 拓跋窟咄稍前逼魏王珪, 賀染干侵魏北部以應之. 魏衆驚擾, 北部大人叔孫普洛亡奔劉衛辰. 麟聞之, 遽遣安同等歸. 魏人知燕軍在近, 衆心少安. 窟咄進屯高柳, 珪引兵與麟會擊之, 窟咄大敗, 奔劉衛辰, 衛辰殺之. 珪悉收其衆, 以代人庫狄干爲北部大人. 麟引兵還中山.”

59) 『魏書』卷2, 「太祖紀」登國二年條, 21~22면, “夏五月, 遣行人安同徵兵於慕容垂, 垂使子賀麟率衆來會.”

60) 姚宏傑도 後燕의 獨孤部 攻滅과 파병이 親燕 세력 부식을 통한 北邊 안정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姚宏傑, 앞의 2000 논문, 128오른면).

와 賀蘭部の 군사적 지원을 받은 窟咄에게 수세에 몰린 拓跋珪를 구원하고 拓跋部 君長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여 代北 지역에 자신의 우호세력 부식에 성공하였다. 바꿔 말하면, 拓跋珪는 拓跋部에서 아직 공고한 입지를 굳힌 것이 아니라 군장 자리를 다투는 경쟁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외부세력인 後燕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정적을 물리치고 拓跋部の 수장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後燕은 상대적으로 약한 拓跋部를 지원하며 代北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鐵弗·獨孤·賀蘭 3部를 견제할 수 있었다. 代北의 세력균형의 교두보를 확보한 後燕은 河北에 산재한 前秦의 잔여세력과 霍魏를 격파하고 河北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Ⅲ. 後燕의 代北 以夷制夷 정책과 拓跋部の 반사이익

1. 後燕의 獨孤部 攻滅

『魏書』에 따르면, 前秦은 拓跋部の 땅을 黃河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어 獨孤部の 수장 劉庫仁에게 동쪽을, 鐵弗部の 수장 劉衛辰에게 서쪽을 다스리도록 하였다.⁶¹⁾ 拓跋部가 해체된 상황에서 獨孤部는 鐵弗부와 함께 北邊과 漠南의 2대 세력이었다. 『周書』卷16 「獨孤信傳」에 따르면, 이때(“魏氏之初”) 獨孤部는 36部, 즉 36개 부족을 거느렸다.⁶²⁾ 劉庫仁은 鄴에 주둔하며 慕容垂에 대항한 苻丕를 돕기 위해 雁門·上谷·代郡의 군대를 징발하여 繁峙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慕容文(慕輿文)이 3郡人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 劉庫仁을 살해하였다. 이에 劉庫仁의 아우 劉頭眷(劉眷)이 劉庫仁의 部衆을 거느렸다.⁶³⁾ 慕容文(慕輿文)은 後燕의 군주 慕容垂의 일족이었기 때문에 劉庫仁이 後燕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劉庫仁을 사로잡아 죽인 것이다. 즉 後燕을 위한 행동이었다. 劉頭眷(劉眷)은 385년 善無에서 賀蘭部를 격파하고 意親山에서 柔然을 격파하였지만, 劉庫仁의 아들 劉顯이 劉頭眷(劉眷)을 살해하고 獨孤部를 통치하였다. 劉顯은 이때 拓跋珪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⁶⁴⁾ 이때 “劉顯의

61) 『魏書』卷2, 「太祖紀」上, 19면.

62) 『周書』卷16, 「獨孤信傳」, 263면, “魏氏之初, 有三十六部, 其先伏留屯者, 爲部落大人, 與魏俱起.”

63)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十月條, 3335면.

땅이 넓고 병력이 강하여 北方에서 가장 뛰어났다”⁶⁵⁾라고 언급할 정도로 劉顯이 거느린 獨孤部の 세력이 강하였다. 이처럼 代北 최강의 獨孤部가 拓跋部 아래에 들어 가려고 했다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劉顯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拓跋珪를 죽여 拓跋部를 약화시키거나 병합하여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登國元年(386) 獨孤部에 내분이 발생하여 三月 劉奴眞이 拓跋部에 항복하였고,⁶⁶⁾ 이어서 劉顯의 아우 劉肺泥가 七月 劉奴眞의 部落을 약탈하고 拓跋部에 항복하였다.⁶⁷⁾ 拓跋珪의 참모 張袞은 劉顯의 지배 지역이 넓고 병력이 강했지만 형제가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 後燕의 도움을 받아 劉顯의 獨孤部를 동서에서 협공하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後燕에 구원병을 권하였다.⁶⁸⁾

이상은 『魏書』의 기록인데, 『資治通鑑』의 기록은 달랐다. 上谷 사람 王敏과 代郡 사람 許謙이 각각 上谷太守와 代郡太守를 죽이고 獨孤部の 수장 劉顯에게 항복하였다.⁶⁹⁾ 이는 獨孤部가 後燕의 上谷·代 2郡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다. 慕容垂는 이를 분쇄하기 위해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을 보내 王敏을 토벌하게 하였다. 慕容麟(慕容賀麟)은 七月 上谷에서 王敏을 참하였다.⁷⁰⁾ 이 와중에 鐵弗部の 君長 劉衛辰이

64)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秋七月條, 3349~3350면, “鮮卑劉頭眷擊破賀蘭部於善無, 又破柔然於意親山. 頭眷子羅辰言於頭眷曰: ‘比來行兵, 所向無敵. 然心腹之疾, 願早圖之!’ 頭眷曰: ‘誰也?’ 羅辰曰: ‘從兄顯, 忍人也, 必將爲亂.’ 頭眷不聽. 顯, 庫仁之子也. 頃之, 顯果殺頭眷自立. 又將殺拓跋珪, 顯弟亢泥妻, 珪之姑也, 以告珪母賀氏. 顯謀主梁六眷, 代王什翼犍之甥也, 亦使其部人穆崇·奚牧密告珪, 且以其妻妾·駿馬付崇曰: ‘事洩, 當以此自明.’ 賀氏夜飲顯酒, 令醉, 使珪陰與舊臣長孫犍·元他·羅結輕騎亡去. 向晨, 賀氏故驚廄中群馬, 使顯起視之. 賀氏哭曰: ‘吾子適在此, 今皆不見, 汝等誰殺之邪?’ 顯以故不急追. 珪遂奔賀蘭部, 依其舅賀訥, 訥驚喜曰: ‘復國之後, 當念老臣!’ 珪笑曰: ‘誠如舅言, 不敢忘也.’ 顯疑梁六眷洩其謀, 將囚之. 穆崇宣言曰: ‘六眷不顧恩義, 助顯爲逆, 我掠得其妻馬, 足以解忿.’ 顯乃捨之.”

65)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8면.

66) 『魏書』卷2, 「太祖紀」登國元年三月條, 20면, “三月, 劉顯自善無南走馬邑, 其族奴眞率所部來降.”

67) 『魏書』卷2, 「太祖紀」登國元年七月條, 21면, “是月, 劉顯弟肺泥率騎掠奴眞部落, 既而率以來降.”

68) 『魏書』卷24, 「張袞傳」, 613면, “時劉顯地廣兵強, 跨有朔裔, 會其兄弟乖離, 共相疑阻. 袞言於太祖曰: ‘顯志大意高, 希冀非望, 乃有參天貳地, 籠罩宇宙之規. 吳不竝越, 將爲後患. 今因其內讐, 宜速乘之. 若輕師獨進, 或恐越逸. 可遣使告慕容垂, 共相聲援, 東西俱舉, 勢必擒之. 然後總括英雄, 撫懷遐邇, 此千載一時, 不可失也.’ 太祖從之, 遂破走顯.”

69)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十三月條, 3376면, “燕上谷人王敏殺太守封戡, 代郡人許謙逐太守賈閏, 各以郡附劉顯.”

70)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9면, “燕趙王麟討王敏於上谷, 斬之.”

後燕에 바친 말을 獨孤部の 君長 劉顯이 약탈하여 가로채자 이에 노한 後燕의 군주慕容垂가 四月(387.5~6) 太原王慕容楷를 보내 趙王慕容麟(慕容賀麟)과 함께 劉顯을 공격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劉顯의 獨孤部를 大破하였다. 그리고 拓跋部和 함께 彌澤에서 劉顯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패한 劉顯은 西燕으로 달아나고 後燕軍은 劉顯의 部衆과 말, 소, 양 천만 마리를 획득하였다.⁷¹⁾ 선행연구에 따르면, 拓跋珪가 代王으로 즉위할 당시 上谷公 紇纁가 거느린 300家, 長孫嵩가 거느린 700餘家を 데리고 있었을 뿐이다. 또 登國元年 十月 劉顯과 교전하기 전 叔孫普洛은 13인과 함께 劉衛辰에게 달아났는데, 이는 叔孫普洛의 군사력이 강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什翼犍시대 “控弦之士數十萬, 馬百萬匹”⁷²⁾에 비하면 소수의 병력을 가진 약체 집단이었다.⁷³⁾ 따라서 공격 주체는 사실상 後燕뿐이었다. 後燕은 劉顯의 아우 劉可泥를 烏桓王에 임명한 후 8萬餘 落⁷⁴⁾ 혹은 8千餘 落⁷⁵⁾을 中山으로 옮겼다. 이때 獨孤部는 劉顯을 따르는 무리와 劉可泥로 나뉘었고, 拓跋部가 수습한 部落⁷⁶⁾을 포함하면 최소 세 집단으로 나뉘었고 따라서 세력은 약화되었다. 이어서 다음 해 三月 後燕의 趙王慕容麟(慕容賀麟)은 劉顯에 귀부한 許謙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패한 許謙은 西燕으로 도망갔다. 後燕은 代郡을 없애고 代郡民을 龍城으로 遷徙하였다.⁷⁷⁾ 이로써 獨孤部に 붙었던 변방 上谷·代郡의 漢人세력을 제거하여 北邊의 우환을 제거하였다.

요컨대 後燕의 獨孤部 공격은 上谷·代 2郡의 변방 漢人세력인 王敏·許謙 등의 반란과 劉顯이 劉衛辰이 바친 말을 훔친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魏書』의 기록과

71)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9면, “劉衛辰獻馬於燕, 劉顯掠之. 燕主垂怒, 遣太原王楷將兵助趙王麟擊顯, 大破之. 顯奔馬邑西山, 魏王引兵會麟擊顯於彌澤, 又破之. 顯奔西密, 麟悉收其部衆, 獲馬牛羊以千萬數.”

72) 『魏書』卷24, 「燕鳳傳」, 609면, “堅曰: 「彼國人馬, 實爲多少?」 鳳曰: 「控弦之士數十萬, 馬百萬匹.」”

73) 勝畑冬實, 「拓跋珪의 「部族解散」と初期北魏政權の性格」, 『早稻田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哲學・史學篇』別冊 20集, 1994, 141위면~141아래면;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46~147면.

74) 『十六國春秋輯補』卷44, 「後燕錄」3, 349면, “會柔然獻馬於燕而劉顯掠之, 垂怒, 遣兵會魏擊顯, 大破之. 顯奔西燕. 垂立其弟爲烏桓王以撫其衆, 徙八萬餘落於中山.”

75)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9면, “燕主垂立劉顯弟可泥爲烏桓王, 以撫其衆, 徙八千餘落於中山.”

76) 『魏書』卷2, 「太祖紀」登國二年六月條, 21~22면, “六月, 帝親征劉顯於馬邑南, 追至彌澤, 大破之, 顯南奔慕容永, 盡收其部落.”

77)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三年三月條, 3382면, “燕趙王麟擊許謙, 破之, 謙奔西燕. 遂廢代郡, 悉徙其民於龍城.”

달리 拓跋部는 조연에 불과했다. 王敏과 許謙이 각각 太守를 죽인 후 後燕에서 이탈하고 獨孤部에 투항한 사실을 보면, 당시 獨孤部가 劉顯 형제의 분란으로 약화되었다는 『魏書』 「張袞傳」의 기사는 당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後燕에 반란을 일으킨 王敏과 許謙이 내분으로 약해진 獨孤部에 투항할 리 없기 때문이다. 遼西·遼東의 유목부족을 이끌고 河北을 점령했던 前燕과 달리 淝水의 전투 이후 前秦의 와해를 틈타 재건된 後燕에 잡다한 세력이 모였지만, 말의 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늘 전쟁을 하는 後燕은 말의 공급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獨孤部를 격파한 것은 代北에서 反後燕 세력을 제거했다는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천만 마리의 가축과 함께 8萬餘落 혹은 8千餘落의 유목민을 확보했다는 것은 後燕의 군사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 반란을 일으킨 上谷·代 2郡 영토의 수복도 後燕의 통치를 확립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군사활동이었다. 게다가 아마도 獨孤部の 활동 지역도 後燕이 차지했을 것이다.⁷⁸⁾ 따라서 後燕은 단순히 拓跋部를 지원하기 위해 獨孤部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참전하였고 커다란 군사적·경제적·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胡三省은 “劉顯이 멸망한 후 拓跋氏가 강해졌다. 慕容氏를 위해 계책을 내면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면 다른 날 亡國의禍는 없었을 것이다”⁷⁹⁾라고 하여 獨孤部の 멸망이 拓跋部가 강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즉 後燕이 代北의 최대 강국인 獨孤部를 멸망시켜 힘의 공백지역으로 만듦으로써 상대적으로 拓跋部가 세력을 확장할 여지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2. 後燕의 賀蘭部 攻滅

『魏書』 「劉庫仁傳」과 「劉虎傳附衛辰傳」에서는 前秦의 拓跋部 정복 이후 劉衛辰의 鐵弗部와 劉庫仁의 獨孤部가 옛 拓跋部の 영토와 部衆을 양분한 것처럼 기록하였다.

78) 당시 獨孤部는 宣武 등 陜北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張俊雷, 「從代到魏-拓跋珪復國運動研究」, 內蒙古大 碩士學位論文, 2010, 9면). 따라서 현재의 大同盆地的 상당 지역을 後燕이 차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79) 『資治通鑑』 卷107, 「晉紀」 29, 孝武帝太元十二年四月條胡註, 3379면, “劉顯滅而拓跋氏強矣. 爲慕容氏計者, 莫若兩利而俱存之, 可以無他日亡國之禍.”

그러나 『魏書』와 『資治通鑑』을 자세히 읽어보면 賀蘭部도 독립된 세력이었다. 賀蘭部는 385년 獨孤部の 劉頭眷(劉眷)에게 善無에서 패하였다.⁸⁰⁾ 賀蘭部가 獨孤部の 劉頭眷(劉眷)의 공격을 받은 것을 보면, 前秦의 拓跋部 정복 이후 賀蘭部는 劉庫仁·劉頭眷 등의 獨孤部に 속한 것이 아니었다. 賀蘭部가 陰山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⁸¹⁾ 黃河 동쪽은 劉庫仁에 속한다는 기사에 따르면 獨孤部の 지배를 받아야 했지만, 385년 기사를 보면 실제와 달랐다.

賀蘭部는 386년 拓跋珪와 拓跋窟咄의 내분에 개입하였다. 拓跋窟咄은 昭成帝 什翼犍의 少子이며 拓跋珪의 叔父였다. 당시 慕容永에 의탁하여 西燕의 新興太守에 임명되었고 西燕은 적극적으로 그를 지원하여 王位를 빼앗도록 하였다. 獨孤部の 劉顯도 拓跋窟咄을 도와 拓跋珪와 싸우도록 하였다.⁸²⁾ 後燕의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은 拓跋珪와 함께 窟咄을 공격하자 賀蘭部の 賀染干은 窟咄 편을 들어 拓跋部の 북부 지역을 공격하였다.⁸³⁾ 여기에서 賀蘭部 君長의 아우인 賀染干은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형인 賀訥과 달리 拓跋部に 적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魏書』에 따르면, 賀訥은 처음에 獨孤部로부터 拓跋珪를 보호해주고 拓跋珪(道武帝)를 代王으로 옹립하는데 기여하였다.⁸⁴⁾ 그러나 賀蘭部の 도움을 갚기는커녕 拓跋珪는 後燕과 함께 賀蘭部를 공격하였다. 『魏書』 「太祖紀」의 賀蘭部 기사를 보면,

80)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孝武帝太元十年秋七月條, 3349~3350면, “鮮卑劉頭眷擊破賀蘭部於善無, 又破柔然於意親山.”

81) 窟咄의 공격을 받은 道武帝는 陰山을 넘어 賀蘭部로 도망갔다(『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元年條, 20면, “八月, 劉顯遣弟亢泥迎窟咄, 以兵隨之, 來逼南境. 於是諸部騷動, 人心顧望. 帝左右于桓等, 與諸部人謀爲逆以應之. 事泄, 誅造謀者五人, 餘悉不問. 帝慮內難, 乃北踰陰山, 幸賀蘭部, 阻山爲固.”). 여기에서 賀蘭部가 당시 陰山 혹은 陰山 이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2) 王仁磊, 앞의 2009 논문, 33오른면.

83)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70면, “燕趙王麟軍未至魏, 拓跋窟咄稍前逼魏王珪, 賀染干侵魏北部以應之. 魏衆驚擾, 北部大人叔孫普洛亡奔劉衛辰. 麟聞之, 遽遣安同等歸. 魏人知燕軍在近, 衆心少安. 窟咄進屯高柳, 珪引兵與麟會擊之, 窟咄大敗, 奔劉衛辰, 衛辰殺之. 珪悉收其衆, 以代人庫狄干爲北部大人. 麟引兵還中山.”

84) 『魏書』 卷83上, 「外戚·賀訥傳」, 1812면, “後劉顯之謀逆, 太祖聞之, 輕騎北歸訥. 訥見太祖, 驚喜拜曰: ‘官家復國之後當念老臣.’ 太祖笑答曰: ‘誠如舅言, 要不忘也.’ 訥中弟染干粗暴, 忌太祖, 常圖爲逆, 每爲皇姑遼西公主擁護, 故染干不得肆其禍心. 於是諸部大人請訥兄弟求舉太祖爲主. 染干曰: ‘在我國中, 何得爾也!’ 訥曰: ‘帝, 大國之世孫, 興復先業, 於我國中之福. 常相持獎, 立繼統勳, 汝尚異議, 豈是臣節!’ 遂與諸人勸進, 太祖登代王位于牛川.”

먼저 登國 5년(390) “慕容垂가 아들 賀麟을 보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만났다. 拓跋珪(道武帝)는 夏四月 丙寅日 意辛山에 行幸하여 賀麟과 함께 賀蘭·紇突隣·紇奚諸部落을 토벌하여 大破하였다.”⁸⁵⁾ 다음 해인 登國 6년(391) “六月, 慕容賀麟(慕容麟)은 赤城에서 賀訥을 격파하였다. 拓跋珪는 병사를 이끌고 賀訥을 구원하니 麟은 퇴각하여 달아났다.”⁸⁶⁾ 『魏書』 「太祖紀」의 논리에 따르면, 北魏는 登國 5년(390) 後燕과 함께 賀訥의 賀蘭部를 공격했으나 다음 해 도리어 賀蘭部를 도와 後燕을 공격하였다. 1년 사이에 拓跋部の 아군과 적군이 바뀌었는데, 『魏書』 「太祖紀」에서 그 이유를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魏書』 「賀訥傳」에 따르면, 賀訥은 처음에 鐵弗部 劉衛辰과 연합하였다가 후에는 後燕의 慕容部和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후 賀染干과 군주의 자리를 두고 싸우다가 賀訥은 後燕의 공격을 받아서 赤城에서 패하고 拓跋部の 구원을 받아 기사화생하였다.⁸⁷⁾ 양자의 기록 모두 拓跋珪가 後燕의 공격을 받은 賀蘭部를 구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資治通鑑』에 따르면, 後燕은 太元 14년(389) 五月 范陽王 慕容德과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을 보내 賀訥을 공격하게 하였다. 勿根山(東木根山이라고도 하며 현재의 內蒙古自治區 興和縣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달아난 賀訥이 항복하니 後燕은 賀訥의 무리를 後燕의 영토인 上谷郡(治所는 현재의 北京市 延慶區)으로 이주시키고 賀染干은 인질로 後燕의 수도 中山에 억류시켰다.⁸⁸⁾ 당시 上谷郡은 반란이 진압된 후 다시 後燕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곳에 賀蘭部の 수장 賀訥을 安置하고 賀訥의 아우 賀染干을 後燕의 수도에 인질로 억류한 것을 보면 이때 賀蘭部는 後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後燕이 賀蘭部の 수장 賀訥의 아우 賀染干을 인질로 확보한 조치는 賀蘭部가 後燕에 臣屬함을 보증하는 장치였다. 그런데 이때 賀蘭部 전체가 後燕에 臣屬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 해 四月 丙寅⁸⁹⁾ 拓跋珪와 慕容麟(慕容賀

85) 『魏書』 卷2, 「太祖紀」 登國五年條, 23면, “慕容垂遣子賀麟率衆來會. 夏四月丙寅, 行幸意辛山, 與賀麟討賀蘭·紇突隣·紇奚諸部落, 大破之.”

86)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六月條, 24면, “六月, 慕容賀麟破賀訥於赤城. 帝引兵救之, 麟退走.”

87) 『魏書』 卷83上, 「外戚·賀訥傳」, 1812면, “及太祖討吐突隣部, 訥兄弟遂懷異圖, 率諸部救之. 帝擊之, 大潰, 訥西遁. 衛辰遣子直力鞬征訥. 訥告急請降, 太祖簡精騎二十萬救之. 遂徙訥部落及諸弟處之東界. 訥又通於慕容垂, 垂以訥爲歸善王. 染干謀殺訥而代立, 訥遂與染干相攻. 垂遣子麟討之, 敗染干於牛都, 破訥於赤城. 太祖遣師救訥, 麟乃引退. 訥從太祖平中原, 拜安遠將軍.”

88) 『資治通鑑』 卷107, 「晉紀」 29, 孝武帝太元十四年五月條, 3388면, “燕范陽王德·趙王麟擊賀訥, 追奔至勿根山, 訥窮迫請降, 徙之上谷, 質其弟染干於中山.”

麟)이 390년 意辛山에서 만나 賀蘭·紇突鄰·紇奚 3부를 격파하였다. 이때 紇突隣·紇奚 2부는 拓跋部(北魏)에 항복하였다.⁹⁰⁾ 胡三省注에 따르면, 意辛山은 牛川의 북쪽에 있었으며, 賀蘭部の 거주지였다. 즉 賀蘭部는 陰山 넘어 북쪽에 위치하였다.⁹¹⁾ 1년 전 賀蘭部の 수장 賀訥과 賀染干이 後燕으로 이송되었으므로, 賀蘭部の 존재는 해석하기 어렵다. 당시 賀蘭部の 수장 賀訥이 389년 後燕의 上谷郡에 遷徙되었고, 391년 後燕의 慕容麟에게 赤城에서 패하였기 때문이다.⁹²⁾ 赤城은 上谷郡 북쪽에 위치했으므로⁹³⁾ 賀訥은 389년부터 391년까지 後燕의 上谷郡 일대에 있었다. 반면 동생 賀染干은 389년 後燕의 수도인 中山에 억류되었지만 391년 牛都에서 後燕의 將軍 蘭汗의 공격을 받았다.⁹⁴⁾ 胡三省에 따르면 ‘牛都’의 ‘都’는 ‘聚’의 뜻이며, 平城 북쪽에 위치한 牛川에 있었다고 하였다. 夷人이 放牧을 하다가 이 곳에서 聚會하여 ‘牛都’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보았다.⁹⁵⁾ 牛川은 陰山 일대였으므로⁹⁶⁾ 당시 賀染干이 陰山 일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90년 意辛山에서 패한 賀蘭部の 수장은 賀染干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 1년 후 賀染干이 賀蘭部를 統領하여 後燕과 싸운 사실이 정합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賀染干은 後燕의 수도 中山에 인질로 끌려갔지만 탈출하여 陰山에 남은 賀蘭部를 차지하여 수장이 되었을 것이다.

약 3개월 후인 七月 劉衛辰이 아들 直力鞬를 보내 賀蘭部를 공격하자 賀蘭部の 수장 賀訥은 拓跋部(魏)에 항복을 청하였고 이에 拓跋珪는 賀蘭部를 구원하였다. 이때 直力鞬는 물러났으나, 賀訥의 部落을 東境으로 이주시켰다.⁹⁷⁾ 鐵弗部の 수장

89) 陳垣의 『二十史朔閏表』에 따르면, 390년 四月에 丙寅日이 없다.

90)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五年夏四月丙寅條, 3396면, “丙寅, 魏王珪會燕趙王麟於意辛山, 擊賀蘭·紇突鄰·紇奚三部, 破之, 紇突鄰·紇奚皆降於魏.”

91)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五年四月丙寅條胡註, 3396면, “意辛山在牛川北, 賀蘭部所居也. 據北史, 踰陰山而北, 卽賀蘭部.”

92)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六月條, 3399면, “六月, 甲辰, 燕趙王麟破賀訥於赤城, 禽之, 降其部落數萬.”

93)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1982, 50~51면.

94)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 3398면, “夏, 四月, 燕蘭汗破賀染干於牛都.”

95)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胡註, 3398면, “都, 聚也. 其地當在牛川, 夷人放牧, 於此聚會, 因名.”

96)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1982, 52면.

97)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四年條, 3397면, “劉衛辰遣子直力鞬攻賀蘭部, 賀訥困急, 請降於魏. 丙子, 魏王珪引兵救之, 直力鞬退. 鞬徙訥部落, 處之東境.”

劉衛辰은 後燕의 공격을 받고 약화된 賀蘭部를 공격했고, 賀訥이 拓跋珪에게 구원을 청하자 拓跋部가 鐵弗部와 賀蘭部の 전쟁에 개입하였다. 『魏書』 「賀訥傳」에서는 拓跋部가 賀訥의 部落을 東界에 거처하게 하였다고 기록하여⁹⁸⁾ 賀蘭部 遷徙의 주체가 다르다. 다음 해 後燕과 拓跋部가 연합하여 賀蘭部를 공격했던 기사를 보면, 『資治通鑑』의 기록이 사실에 부합한다. 왜냐하면, 賀蘭部가 拓跋部の 東界에 두어졌다면, 이미 賀蘭部가 拓跋部の 영토 안에 있는 복속 세력이므로 다시 後燕을 끌어들여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에 賀訥의 部落은 上谷郡에 있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91년 後燕의 공격을 받은 장소가 上谷郡 북쪽의 赤城이었기⁹⁹⁾ 때문에 安置시킨 賀訥의 部落은 여전히 上谷郡 일대에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鐵弗部가 安置한 東境은 上谷郡 일대였을 것이다. 필자의 추론이 맞다면, 鐵弗部는 일시적으로 後燕의 上谷郡 일대에 있었던 賀蘭部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이다.

賀蘭部の 상황을 정리하면, 賀蘭部는 389년 後燕에 패해 수장 賀訥 형제는 後燕의 영토 안으로 遷徙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陰山 일대에 있었다. 이에 390년 四月 後燕과 拓跋部는 賀蘭部를 공격하였고 紇突隣·紇奚 2部는 拓跋部에 투항하였다. 같은 해 七月 鐵弗部가 賀蘭部를 공격하여 賀訥 등을 東境에 이주시켰다. 그런데 다음 해 賀訥의 위치를 보면, 실제로 이주시킨 東境은 上谷郡 일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아마도 後燕의 통제와 감시가 약해진 상황에서 賀訥이 後燕으로 벗어나 賀蘭部 세력을 수습하다가 鐵弗部の 공격을 받아 鐵弗部の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後燕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賀蘭部를 다시 공격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資治通鑑』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賀染干은 형 賀訥을 살해하려고 모의하였으나 賀訥은 그 사실을 알고 군대를 동원해 서로 공격하였다. 魏王 珪는 이를 燕에 고하였고 鄉導가 되어 賀蘭部를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二月 甲戌[三月 二日(391. 4. 21.)]¹⁰⁰⁾ 燕主[慕容]垂는 趙王[慕容]麟(慕容賀麟)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賀訥을 공격하게 하였고, 鎮北將軍

98) 『魏書』卷83上, 「外戚·賀訥傳」, 1812면, “訥告急請降, 太祖簡精騎二十萬救之. 遂徙訥部落及諸弟處之東界.”

99)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六月條, 3399면.

100) 『資治通鑑』에는 二月甲戌이라고 했으나, 二月에는 甲戌일이 없어 실제로 三月初二였다(吳玉貴, 『《資治通鑑》疑年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95~96면). 본문에서는 이 고증을 따른다.

蘭汗은 龍城의 군대를 동원해 賀染干 공격하게 하였다.¹⁰¹⁾

위의 인용문에서 拓跋珪가 後燕의 鄉導가 되기를 청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賀蘭部 공격의 주체는 後燕이었다. 胡三省注에 따르면 賀染干의 部落은 賀訥이統領한 賀蘭部の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後燕의 동북쪽에 있었던 龍城에서 蘭汗이 출격하였다.¹⁰²⁾ 그러나 後燕의 將軍 蘭汗이 賀訥을 공격했던 牛都가 牛川 일대라면,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이 牛川의 동쪽인 赤城에서 賀訥을 공격했기 때문에 胡三省의 지리 고증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시 賀蘭部는 賀訥과 아우 賀染干 형제가 部衆을 나누어統領하던 상황이었음은 사실이었다. 또 中山에 인질로 억류되었던 賀染干이 탈출하여 자신의 세력을 규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後燕은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鐵弗部에 臣屬한 賀蘭部를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이며, 賀蘭部 수장 賀訥 형제가 싸우는 틈을 타서 賀蘭部를 다시 정복하려고 하여 慕容麟(慕容賀麟)과 蘭汗을 보내 각각 賀訥과 賀染干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같은 해 四月 後燕의 蘭汗은 牛都에서 賀染干을 격파하였다.¹⁰³⁾ 胡三省은 牛都를 牛川 부근으로 보았고¹⁰⁴⁾ 牛川은 陰山 일대였으므로¹⁰⁵⁾ 당시 賀染干이 陰山 일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六月 甲辰日(391. 7. 20.) 慕容麟(慕容賀麟)이 賀訥을 上谷郡 북쪽의 赤城에서 격파하고 部落 수만을 항복시켰다. 後燕의 군주 慕容垂는 賀訥의 部落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賀染干을 中山으로 옮겼다.¹⁰⁶⁾ 慕容垂가 취한 조치를 보면, 後燕은 賀蘭部の 거주지인 陰山 일대의 지배에 집착하지 않고 賀蘭部の 部衆을 後燕

101)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 3398면, “賀染干謀殺其兄訥, 訥知之, 舉兵相攻. 魏王珪告於燕, 請爲鄉導以討之. 二月, 甲戌, 燕主垂遣趙王麟將兵擊訥, 鎮北將軍蘭汗帥龍城之兵擊染干.”

102)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胡註, 3398면, “賀染干部落, 蓋居賀蘭部之東偏, 故燕以龍城之兵擊之.”

103)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 3398면, “夏, 四月, 燕蘭汗破賀染干於牛都.”

104)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胡註, 3398면, “都, 聚也. 其地當在牛川, 夷人放牧, 於此聚會, 因名.”

105) 譚其驤 主編, 앞의 1982 책, 52면.

106)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六月條, 3399면, “六月, 甲辰, 燕趙王麟破賀訥於赤城, 禽之, 降其部落數萬. 燕主垂命麟歸訥部落, 徙染干於中山.” 『魏書』「賀訥傳」에서는 拓跋部가 賀訥을 구원하여 慕容麟이 후퇴했다고 기록하였다(『魏書』卷83上, 「外戚·賀訥傳」, 1812면, “太祖遣師救訥, 麟乃引退.”).

의 영토로 옮겨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 後燕은 數萬의 賀蘭部 人民을 後燕의 영토로 遷徙하여 유목민과 가축을 획득하였다. 이때 賀蘭部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고 상당수는 後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後燕이 獨孤部에 이어 賀蘭部를 격파하고 그 部衆을 後燕 境內로 遷徙하자 漠南과 代北에 남은 주요 유목세력은 拓跋部뿐이었다. 獨孤部和 賀蘭部 정복에 큰 공을 세운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은 慕容垂에게 拓跋珪가 後燕의 근심(國患)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며 拓跋珪를 後燕으로 불러들이고 拓跋珪의 아우에게 拓跋部를 감독하도록 하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慕容垂는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⁰⁷⁾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은 漠南 일대의 세력 공백과 함께 어부지리로 세력을 확대한 拓跋部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慕容垂는 拓跋部の 君長 拓跋珪를 무시하였다.

IV. 拓跋珪의 자립과 叛燕

1. 拓跋珪의 劉衛辰部和 遊牧諸部 정복: 漠南의 통합

拓跋珪는 後燕이 獨孤·賀蘭 2部를 정복한 후 後燕의 ‘무관심’과 漠南의 세력 공백을 이용해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拓跋珪는 後燕이 387년 獨孤部를 정복한 이후 다른 遊牧諸部를 공략하여 세력을 키웠다. 劉顯의 獨孤部 멸망은 拓跋部가 강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胡三省의 지적¹⁰⁸⁾은 拓跋部の 유목민 諸部 병합 기사에서 검증할 수 있다. 登國 3년(388) 庫莫奚를 공격하였고 女水 일대의 解如部를 大破하고 男女雜畜 十數萬을 획득하였다.¹⁰⁹⁾ 다음 해(389) 三月 高車諸部落과 吐突隣部를 大破하였다.¹¹⁰⁾ 登國 5년(390) 高車 袁紇部를 격파하고 生口와 馬·牛·羊 20餘萬을 노획하

107)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六月條, 3399면, “燕主垂命麟歸訥部落, 徙染干於中山. 麟歸, 言於垂曰: ‘臣觀拓跋珪舉動, 終爲國患, 不若攝之還朝, 使其弟監國事.’ 垂不從.”

108)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胡註條, 3379면, “劉顯滅而拓跋氏強矣.”

109) 『魏書』卷2, 「太祖紀」登國三年條, 22면, “秋七月庚申, 庫莫部附鳩集遺散, 夜犯行宮. 縱騎撲討, 盡殺之. …… 十有二月辛卯, 車駕西征. 至女水, 討解如部. 大破之, 獲男女雜畜十數萬.”

110) 『魏書』卷2, 「太祖紀」登國四年條, 22~23면, “四年春正月甲寅, 襲高車諸部落, 大破之. 二月癸巳, 至女水, 討叱突鄰部, 大破之.”

었다.¹¹¹⁾ 같은 해 九月 叱奴部, 十月에 高車 豆陳部를 격파하였다. 十一月에 紇奚部 大人 庫寒이, 十二月에 紇突隣部 大人 屈地鞬이 內屬하였다.¹¹²⁾ 『魏書』 「太祖紀」에는 紇奚·紇突隣 2부의 內屬 원인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資治通鑑』에서는 後燕이 賀蘭·紇突隣·紇奚 3부를 격파한 후 紇奚·紇突隣 2부가 拓跋部(北魏)에 항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¹³⁾ 拓跋部는 後燕의 賀蘭部 공격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魏書』 「太祖紀」에서 누락한 것이다. 拓跋珪는 登國 6년(391) 三月 九原公 儀와 陳留公 虔을 보내 黠弗部를 大破하였고¹¹⁴⁾ 十月 柔然(蠕蠕)을 大破하였다.¹¹⁵⁾ 이때 항복한 山胡 3千餘家を 馬邑에 거주하게 하였다.¹¹⁶⁾ 登國 8년(393) 三月과 四月 侯呂鄰部를 大破하고¹¹⁷⁾ 後燕의 西燕 공격을 틈타 類拔部를 격파한 후 遷徙하였다.¹¹⁸⁾

이 가운데 劉衛辰의 鐵弗部 격파가 拓跋部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北魏와 夏의 관계는 ‘序紀時代’ 즉 北魏가 拓跋部 부족연합체(혹은 중국식으로 代國이라 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夏의 선조는 匈奴 右賢王 去卑의 손자이자 北部帥 劉猛의 從子인 劉虎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新興郡 慮虜 북쪽에 거주하였다. 劉虎는 鬱律(平文帝)와 西晉 并州刺史 劉琨의 연합군에게 패해 달아나 朔方을 점령하고 劉聰에게 歸附하여 安北將軍 監鮮卑諸軍事 丁零中郎將에 임명되었다. 이후 鬱律·什翼犍(昭成帝) 시기에 拓跋部の 西部를 공격하였다. 什翼犍(昭成帝) 시기 拓跋部를 공격했다가 도리어 대패하였다.¹¹⁹⁾ 『晉書』 「赫連勃勃載記」에 따르면 劉虎(劉武)¹²⁰⁾는 猗盧에

111) 『魏書』 卷2, 「太祖紀」 登國五年三月甲申條, 23면, “五年春三月甲申, 帝西征. 次鹿渾海, 襲高車袁紇部, 大破之, 虜獲生口·馬牛羊二十餘萬.”

112) 『魏書』 卷2, 「太祖紀」 登國五年條, 23면, “九月壬申, 討叱奴部於囊曲河, 大破之. 冬十月, 遷雲中, 討高車豆陳部於狼山, 破之. 十有一月, 紇奚部大人庫寒舉部內屬. 十有二月, 紇突隣大人屈地鞬舉部內屬.”

113) 『資治通鑑』 卷107, 「晉紀」 29, 孝武帝太元十五年夏四月條, 3396면.

114)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三月條, 23면, “三月, 遣九原公元儀·陳留公元虔等西討黠弗部, 大破之.”

115)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條, 24면, “冬十月戊戌, 北征蠕蠕. 追之, 及於大磧南床山下, 大破之. 班賜從臣各有差. 其東西二部主匹候跋及縑紇提, 斬別帥屋擊於. 事具蠕蠕傳.”

116)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條, 24면, “山胡酋大幡頽·業易於等率三千餘家降附, 出居於馬邑.”

117)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八年條, 25면, “三月, 車駕西征侯呂鄰部. 夏四月, 至苦水, 大破之.”

118)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八年條, 25면, “五月, 還幸白樓. 慕容垂討慕容永於長子. 六月, 車駕北巡. 永來告急, 遣陳留公元虔·將軍庾岳率騎五萬東度河救之. 破類拔部帥劉曜等, 徙其部落. 元虔等因屯秀容, 慕容垂遂圍長子.”

게 패하여 塞表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劉虎의 아들 劉豹子¹²¹⁾는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諸部の 우두머리가 되었고, 後趙의 군주 石虎로부터 平北將軍 左賢王 丁零單于에 임명되었다.¹²²⁾ 左賢王은 匈奴에서 單于 다음의 2인자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으므로, 당시 劉豹子¹²³⁾가 匈奴系 부족의 일부를 지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丁零單于’의 직함을 보면 劉豹子¹²⁴⁾가 투르크계 유목민인 丁零 諸部를 통치했음을 알 수 있다. 즉 劉豹子¹²⁵⁾는 匈奴와 丁零 등 유목부족을 통치하며 강성해졌다. 劉豹子의 아들 劉衛辰은 前秦을 상대로 복속과 배반을 거듭하며 세력을 유지하였다. 예컨대 그는 升平 4년 (360) 前秦에 항복하였다.¹²⁶⁾ 이후 匈奴 左賢王 劉衛辰은 興寧 3년(365) 右賢王 曹穀과 함께 前秦의 杏城을 공격하였다.¹²⁷⁾ 『晉書』 卷113 「苻堅載記」 上과 『晉書』 卷8 「廢帝海西公紀」에서 劉衛辰을 ‘匈奴 左賢王’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劉虎의 손자 劉衛辰이 匈奴 등 유목세력을 통치한 독립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晉書』 卷130 「赫連勃勃載記」에서도 赫連勃勃의 曾祖 武(劉虎)는 漢(前趙) 劉聰 때 安北將軍 監鮮卑諸軍事 丁零中郎將에 임명되었고 代王 猗盧에게 패해 塞表로 나갔다고 기록하였다. 父 劉衛辰은 塞內에 入居하고 前秦의 苻堅으로부터 西單于에 임명되고 河西의 諸虜를 감독하였고 前秦의 붕괴 이후 朔方을 점령하고 控弦之士 3萬 8千을 거느렸다고 하였다.¹²⁸⁾ 이 기사에는 劉武(劉虎)와 劉衛辰이 拓跋部の 屬國이었다는 기록은

119) 『魏書』 卷95, 「鐵弗劉虎傳」, 2054면, “鐵弗劉虎, 南單于之苗裔, 左賢王去卑之孫, 北部帥劉猛之從子, 居於新興慮廐之北. 北人謂胡父鮮卑母爲‘鐵弗’, 因以爲號. 猛死, 子副嵩來奔. 虎父誥升爰代領部落. 誥升爰一名訓兜. 誥升爰死, 虎代焉. 虎一名烏路孤. 始臣附於國, 自以衆落稍多, 舉兵外叛. 平文與晉竝州刺史劉琨共討之, 虎走據朔方, 歸附劉聰, 聰以虎宗室, 拜安北將軍・監鮮卑諸軍事・丁零中郎將. 復渡河侵西部, 平文逆擊, 大破之, 虎退走出塞. 昭成初, 虎又寇西部, 帝遣軍逆討, 又大破之. 虎死, 子務桓代領部落, 遣使歸順.”

120) 唐初 편찬된 『晉書』에서 劉虎를 ‘劉武’로 표기했는데, 이는 唐高祖 李淵의 할아버지 李虎의 이름을 避諱하기 위해서이다.

121) 『晉書』 卷130, 「赫連勃勃載記」, 3201면, “赫連勃勃字屈子, 匈奴右賢王去卑之後, 劉元海之族也. 曾祖武, 劉聰世以宗室封樓煩公, 拜安北將軍・監鮮卑諸軍事・丁零中郎將, 雄據肆廬川. 爲代王猗盧所敗, 遂出塞表. 祖豹子招集種落, 復爲諸部之雄, 石季龍遣使就拜平北將軍・左賢王・丁零單于.”

122) 『晉書』 卷113, 「苻堅載記」 上, 2887면, “時匈奴左賢王衛辰遣使降于堅, 遂請田內地, 堅許之.”

123) 『晉書』 卷8, 「廢帝海西公紀」 興寧三年七月條, 210면, “秋七月, 匈奴左賢王衛辰・右賢王曹穀帥衆二萬侵苻堅杏城.”

124) 『晉書』 卷130, 「赫連勃勃載記」, 3201면, “赫連勃勃字屈子, 匈奴右賢王去卑之後, 劉元海之族也.

없다. 그리고 劉衛辰은 前秦이 拓跋部를 정복하기 이전부터 河西·朔方으로 불리는 오르도스 일대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前秦이 拓跋部를 정복한 후 黃河 서쪽을 劉衛辰에게 통치하게 했다는 『魏書』의 기록은 사실과 다르며, 拓跋珪가 劉衛辰의 鐵弗部를 정복한 후 그 이전부터 拓跋部に 臣屬한 세력이었다고 기록하여 정복과 鐵弗部 세력의 拓跋部 복속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 세대에 걸쳐 싸우던 두 세력은 결국 道武帝가 登國 6년 十一月(391.12~392.1) 劉衛辰의 아들 直力鞬가 지휘하는 군대를 격파하고, 승세를 타서 五原 金津에서 黃河를 건너 劉衛辰部를 습격하여 劉衛辰의 수도 悅跋城을 점령하면서 北魏의 승리로 끝났다. 『魏書』 「太祖紀」에 따르면, 道武帝는 黃河 이남, 즉 오르도스의 諸部를 평정하였으며, 珍寶와 名馬 30餘萬 匹, 牛羊 400餘萬 頭 등의 畜産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고 이를 大臣들에게 班賜하였다. 그리고 劉衛辰의 子弟宗黨 5천여 인을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죽였다.¹²⁵⁾ 『魏書』 「食貨志」에서는 “처음에 登國 6년(391) 劉衛辰을 격파하여 그의 珍寶와 畜産, 名馬 30餘萬, 牛羊 4百餘萬을 거두니 점차 國用이 증가하였다.”¹²⁶⁾ 라고 特記할 정도로 拓跋部の 鐵弗部 정복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拓跋部가 劉衛辰의 鐵弗部를 격파한 登國 6년 十一月은 後燕이 賀蘭部를 大破하고 部落을 이주시킨 六月¹²⁷⁾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였다. 拓跋部는 後燕이 賀蘭部를 공격할

曾祖武, 劉聰世以宗室封樓煩公, 拜安北將軍·監鮮卑諸軍事·丁零中郎將, 雄據肆廬川. 爲代王猗廬所敗, 遂出塞表. 祖豹子招集種落, 復爲諸部之雄, 石季龍遣使就拜平北將軍·左賢王·丁零單于. 父衛辰入居塞內, 苻堅以爲西單于, 督攝河西諸虜, 屯于代來城. 及堅國亂, 遂有朔方之地, 控弦之士三萬八千.”

125)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391)條, 24면, “十有一月戊辰, 還幸紐垓川. 戊寅, 〔劉衛辰遣子直力鞬寇南部. 己卯, 車駕出討. 壬午 大破直力鞬軍於鐵岐山南, 獲其器械輜重, 牛羊二十餘萬. 戊子, 自五原金津南渡河. 辛卯, 次其所居悅跋城, 〔劉衛辰父子奔遁. 壬辰, 詔諸將追之, 擒直力鞬. 十有二月, 獲劉衛辰尸, 斬以徇, 遂滅之. …… 收〔劉衛辰子弟宗黨無少長五千餘人, 盡殺之.〕; 『魏書』 卷95, 「鐵弗劉虎傳附衛辰傳」, 2055면, “登國中, 〔劉衛辰遣子直力鞬寇南部, 其衆八九萬, 太祖軍五六千人, 爲其所圍. 太祖乃以車爲方營, 竝戰竝前, 大破之於鐵岐山南, 直力鞬單騎而走, 獲牛羊二十餘萬. 乘勝追之, 自五原金津南渡, 逐入其國, 居民駭亂, 部落奔潰, 遂至衛辰所居悅跋城. 〔劉衛辰父子驚遁, 乃分遣諸將輕騎追之. 陳留公元虔南至白鹽池, 虜衛辰家屬; 將軍伊謂至木根山, 擒直力鞬, 盡并其衆. 〕劉衛辰單騎遁走, 爲其部下所殺, 傳首行宮, 獲馬牛羊四百餘萬頭.”

126) 『魏書』 卷110, 「食貨志」, 2849면, “初, 登國六年破衛辰, 收其珍寶·畜産, 名馬三十餘萬·牛羊四百餘萬, 漸增國用.”

127) 『資治通鑑』 卷107, 「晉紀」 29, 孝武帝太元十六年六月條, 3399면.

때 紇突隣·紇奚 2部를 흡수하는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강적 賀蘭部가 사라지자 북쪽과 동쪽에서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서쪽의 鐵弗部와 일전을 겨룰 틈을 얻었다. 그리고 劉衛辰의 鐵弗部를 정복하여 漠南 일대의 주요 유목세력을 병합하는데 성공하였다. 後燕의 趙王 慕容麟(慕容賀麟)이 拓跋珪를 後燕으로 소환하여 억류해야 한다는 간언은 拓跋珪의 鐵弗部 大破 이전의 일이지만, 獨孤部和 賀蘭部가 사라진 漠南 일대에서 拓跋部의 세력 확장을 겨냥한 우려였고 실제로 실현되었다.

여기서 後燕의 군주 慕容垂가 왜 拓跋部의 팽창에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後燕이 賀蘭部를 격파하고 後燕의 영토로 강제이주시킨 후 慕容垂는 丁零이 세운 翟魏와 각지에서 일어난 지방호족의 반란의 토벌을 직접 지휘하며 각지로 진군하였다. 慕容垂는 분투 끝에 391년 翟魏를 정복하고 393년 西燕을 정복하였다. 이후 黃河 이남의 靑州·兗州 2州를 공략하였다.¹²⁸⁾ 즉 拓跋珪가 代北의 유목부족과 劉衛辰의 鐵弗部를 정복하는 동안 後燕은 河北의 반란을 평정함과 동시에 翟魏와 西燕을 차례로 정복하고 黃河 하류(靑·兗 2州)를 공략하는 등 關東 전체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즉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 정복전쟁을 진행하느라 拓跋部를 견제할 겨를이 없었다. 慕容垂가 西燕 정복과 黃河 이남으로 관심을 오로지 쏟은 이유는 拓跋部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고 북방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代北의 최강 獨孤部和 그 다음 세력인 賀蘭部를 정복하여 그 部衆을 흡수했기 때문에 北邊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당시 拓跋部의 세력이 慕容垂가 무시할 정도로 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拓跋珪가 劉衛辰의 鐵弗部를 정복한 이후 後燕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기반을 마련하였다.

2. 參合陂 전투: 後燕으로부터 독립

『魏書』「太祖紀」는 拓跋珪가 代王에 올랐던 후 拓跋部(北魏)와 拓跋珪(道武帝)가 정통인 것처럼 기록하였다. 예컨대 後燕에서 北魏에 보내는 사신을 慕容垂의 朝貢으로 기록하였고,¹²⁹⁾ 後燕에 구원병을 청한 기사를 “慕容垂에게 徵兵하였다”라고 기록

128) 高然, 앞의 2018a 논문, 107~110면.

129) 『魏書』卷2, 「太祖紀」登國三年條, 22면, “八月使九原公元儀使於慕容垂. 冬十一月, 慕容垂遣使朝貢.”; 『魏書』卷2, 「太祖紀」登國四年條, 22면, “夏四月, 行還赤城. 五月, 陳留公元度使於慕容垂.”

하였다.¹³⁰⁾ 특히 窟咄이 拓跋珪의 경쟁자로 등장한 登國元年에도 行人 安同과 長孫賀를 보내 慕容垂의 군대를 “征師”하였고, 慕容垂의 朝貢을 받았다.¹³¹⁾ 『資治通鑑』에서 登國 2년 拓跋珪의 “徵兵”기사를 “乞師於燕”라고 기록하였다.¹³²⁾ 이 표현은 당시 세력관계에서 강대국은 後燕이고, 拓跋部는 後燕의 屬國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당시 상황에 따른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南齊書』 『魏虜傳』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苻堅이 패한 이후 [什翼犍의] 아들인 珪는 字가 涉圭인데, 외삼촌인 慕容垂가 中山을 차지하고 지키며 [後燕을 세울 때] 곁에 있다가, [拓跋部로] 돌아와서 그 부락을 거느렸고, 후에 점점 강성해졌다.”¹³³⁾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拓跋珪는 慕容垂가 後燕을 세울 때 慕容垂 휘하에 있다가 후에 拓跋部로 돌아갔다. 이를 검증해 보자.

먼저 인척관계이다. 什翼犍(昭成帝)의 皇后 慕容氏가 慕容皝의 딸이고,¹³⁴⁾ 慕容垂는 慕容皝의 다섯째 아들이다.¹³⁵⁾ 『南齊書』 『魏虜傳』에서 拓跋珪가 什翼犍의 아들이라고 했으므로 慕容垂와 拓跋珪는 외삼촌과 외조카 관계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拓跋部の 什翼犍은 慕容皝의 妹와 慕容氏 宗女, 慕容皝의 딸을娶하였고, 慕容皝도 烈帝 翳槐의 딸을娶하였다. 融和元年(362) 서로 겹사돈을 맺는 등 대대로

冬十月, 垂遣使朝貢.”

130) 『魏書』卷2, 「太祖紀」登國元年五月條, 21면, “夏五月, 遣行人安同徵兵於慕容垂, 垂使子賀麟率衆來會.”; 『魏書』卷2, 「太祖紀」登國二年條, 21~22면, “夏五月, 遣行人安同徵兵於慕容垂, 垂使子賀麟率衆來會.”

131) 『魏書』卷2, 「太祖紀」登國元年八月條, 21면, “初, 帝叔父窟咄爲苻堅徙於長安, 因隨慕容永, 永以爲新興太守. 八月, 劉顯遣弟亢泥迎窟咄, 以兵隨之, 來逼南境. 於是諸部騷動, 人心顧望. 帝左右於桓等, 與諸部人謀爲逆以應之. 事洩, 誅造謀者五人, 餘悉不問. 帝慮內難, 乃北逾陰山, 幸賀蘭部, 阻山爲固. 遣行人安同・長孫賀使於慕容垂以征師. 垂遣使朝貢, 並令其子賀麟帥步騎以隨同等.”

132) 『資治通鑑』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二年夏四月條, 3378면, “劉顯地廣兵強, 雄於北方. 會其兄弟乖爭, 魏長史張袞言於魏王珪曰: ‘顯志在併吞, 今不乘其內潰而取之, 必爲後患. 然吾不能獨克, 請與燕共攻之. 珪從之, 復遣安同乞師於燕.’”

133) 『南齊書』卷57, 「魏虜傳」, 983면, “堅敗, 子珪, 字涉圭, 隨舅慕容垂據中山, 還領其部, 後稍彊盛.”

134) 『北史』卷13, 「后妃上・魏・昭成皇后慕容氏傳」, 491면, “昭成皇后慕容氏, 慕容晃之女也.”

135)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77면, “慕容垂字道明, 皝之第五子也.”

혼인하였다.¹³⁶⁾

다음으로 拓跋珪가 後燕에 체류한 시기이다. 慕容垂는 東晉 孝武帝 太元 11년(386) 中山에 定都하고 建興으로 改元한 후 즉위하였다.¹³⁷⁾ 위 인용문의 원문 “據中山”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慕容垂가 中山에 定都하고 皇帝로 즉위한 386년이 하한선이다. 또 慕容麟(慕容賀麟)이 384년(太元 9) 慕容麟(慕容賀麟)이 常山을 점령하고 苻亮과 苻謨의 항복을 받은 후 七月 中山을 점령하였다.¹³⁸⁾ 樂浪王 慕容溫이 385년 中山의 宮室을 건축하고¹³⁹⁾ 慕容垂가 中山에서 이를 보고 中山에 定都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⁰⁾ 따라서 상한선은 384년이다. 위의 인용문을 신뢰하고 이 고증에 따르면, 拓跋珪는 384~386년 사이에 여전히 慕容垂 곁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魏書』 「太祖紀」에 명확히 拓跋珪가 등장한 시기는 劉庫仁의 아들 劉顯이 劉眷을 죽이고 獨孤部の 君長이 된 후 拓跋珪를 죽이려고 하였고, 이 사실을 안 拓跋珪가 賀蘭部로 달아난 九年(385)이다.¹⁴¹⁾ 이 기사가 옳다면, 1~2년 동안 慕容垂 밑에 있었던 拓跋珪는 385년 무렵 後燕의 慕容垂 곁을 떠나 代北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魏書』卷2 「太祖紀」 登國元年十二月條에 “十二月, 慕容垂가 사신을 보내 朝貢하였고, 帝에게 西單于의 印綬를 바치고, 上谷王에 봉하였다. 帝는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⁴²⁾라고 기록하였다. 慕容垂가 朝貢하는 속국의 군주인데도 上國의 皇帝인 拓跋

136) 謝寶富, 『北朝婚喪禮俗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8, 23~36면; 姚宏傑, 앞의 2000 논문, 127오른면~128왼면; 遼耀東, 「拓跋氏與中原土族的婚姻關係」, 黃寬重·劉增貴 主編, 『家族與社會』,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原載『新亞學報』7-1, 1965), 231~239면; 李金河, 『魏晉隋唐婚姻形態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5, 134~140면.

137)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6면, “垂定都中山, 羣僚勸卽尊號, 具典儀, 修郊燎之禮. 垂從之, 以太元十一年僭卽位, 赦其境內, 改元曰建興, 置百官, 繕宗廟社稷, 立寶爲太子.”

138) 『資治通鑑』卷105, 「晉紀」27, 孝武帝太元九年條, 3330면, “燕慕容麟發常山, 秦苻亮·苻謨皆降. 麟進圍中山, 秋, 七月, 克之, 執苻鑒. 麟威聲大振, 留屯中山.”

139)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三月條, 3343면, “樂浪王溫乃遣兵一萬運糧以餉垂, 且營中山宮室(欲迎垂都中山也).”

140)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條, 3357면, “燕王垂北如中山, 謂諸將曰: ‘樂浪王招流散, 實倉廩, 外給軍糧, 內營宮室, 雖蕭何何以加之!’ 丙申, 垂始定都中山.”

141) 『魏書』卷2, 「太祖紀」九年條, 20면, “九年, 庫仁子顯殺眷而代之, 乃將謀逆. 商人王霸知之, 履帝足於衆中, 帝乃馳還. 是時故大人梁蓋盆子六眷, 爲顯謀主, 盡知其計, 密使部人穆崇馳告. 帝乃陰結舊臣長孫健·元他等. 秋八月, 乃幸賀蘭部. 其日, 顯果使人求帝, 不及. 語在獻明太后傳.”

142) 『魏書』卷2, 「太祖紀」登國元年十二月條, 21면, “十二月, 慕容垂遣使朝貢, 奉帝西單于印綬, 封上

珪에게 西單于의 印綬를 바치고 上谷王에 봉했다는 기록은 논리적 모순이다. 따라서 『資治通鑑』에서 “燕主 垂가 魏王珪를 西單于에 임명하고 上谷王에 봉하였으나, 珪는 받지 않았다”¹⁴³⁾라고 바로잡았다. 이 기록이 冊封 封爵 형식에 맞는 표현이다. 양자의 기록 모두 拓跋珪가 西單于와 上谷王의 官爵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拓跋珪가 慕容垂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任愛君과 孫儉峰은 이후에도 拓跋珪가 後燕의 군사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上谷王의 작위를 거부한 것은 史書의 곡필이라고 보았다.¹⁴⁴⁾ 西燕의 군주 慕容永이 391년 拓跋珪에게 “勸進尊號”¹⁴⁵⁾, 즉 皇帝 즉위를 권한 것을 보면, 拓跋珪는 당시 魏王에 불과하였다.¹⁴⁶⁾ 반면 慕容垂는 386년 皇帝로 즉위하였다.¹⁴⁷⁾ 형식상 皇帝인 慕容垂가 王인 拓跋珪보다 상위에 있었다. 만약 拓跋珪가 慕容垂와 대등해지려고 하려면 皇帝를 자칭해야 했지만,¹⁴⁸⁾ 그 당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拓跋部가 後燕의 屬國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慕容垂는 拓跋珪를 지원하여 拓跋珪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拓跋珪를 통해 북방 유목 諸部를 간접적으로 통치하려고 하였다.¹⁴⁹⁾ 예컨대 登國 3년(388) 拓跋珪의 松漠諸部 공격은 拓跋珪의 단독 행동이 아니었고 동북 邊境을 안정시키고 庫莫奚 등을 정복하여 유목 민과 가축을 확보하려는 後燕의 이해관계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다. 拓跋部가 정복

谷王. 帝不納.”

143) 『資治通鑑』 卷106, 「晉紀」 28, 孝武帝太元十一年條, 3372면, “燕主垂以魏王珪爲西單于, 封上谷王, 珪不受.”

144) 任愛君, 앞의 2001 논문, 39~40면; 孫儉峰, 앞의 2012 논문, 147면.

145)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條, 24면, “秋七月壬申, 講武於牛川, 行還紐垵川. 慕容垂止元觚而求名馬, 帝絕之. 乃遣使於慕容永, 永使其大鴻臚慕容鈞奉表勸進尊號.”

146) 拓跋珪는 登國元年(386) 正月 戊申日 16세(만15세)의 나이에 代王에 즉위하였고(『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元年正月戊申條, 20면, “登國元年春正月戊申, 帝卽代王位, 郊天, 建元, 大會於牛川.”), 四月 魏王으로 改稱하였다(『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元年四月條, 20면, “夏四月, 改稱魏王.”).

147) 慕容垂는 東晉 孝武帝 太元 11년(386) 中山에 定都하고 建興으로 改元한 후 즉위하였다(『晉書』 卷123, 「慕容垂載記」, 3086면, “垂定都中山, 羣僚勸卽尊號, 具典儀, 修郊廟之禮. 垂從之, 以太元十一年僭卽位, 赦其境內, 改元曰建興, 置百官, 繕宗廟社稷, 立寶爲太子.”).

148) 拓跋珪는 皇始元年(396) 左司馬 許謙의 尊號 사용 勸進에 따라 처음으로 天子의 旌旗를 사용하고 연호를 바꾸었다(『魏書』 卷2, 「太祖紀」 皇始元年條, 27면, “秋七月, 左司馬許謙上書勸進尊號, 帝始建天子旌旗, 出入警蹕, 於是改元.”). 이때는 慕容垂가 죽고 慕容寶가 즉위한 이후였다.

149) 姚宏傑, 앞의 2000 논문, 128오른면.

후 통치할 수 없는 庫莫奚 공격에 동원된 것은 拓跋珪가 後燕의 屬國이었고, 後燕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¹⁵⁰⁾

拓跋珪가 後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는 『北史』 卷15 「魏諸宗室·昭成子孫·秦王翰傳附子儀傳」에 보인다. 拓跋珪는 拓跋儀를 後燕에 사신으로 보냈고 慕容垂는 拓跋珪가 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후 拓跋部로 돌아온 拓跋儀는 拓跋珪에게 慕容垂가 죽은 후에야 後燕을 도모할 수 있고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¹⁵¹⁾ 『資治通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388년(太元 13)의 일이다.¹⁵²⁾ 慕容垂가 拓跋珪가 後燕에 와야하는데 오지 않았음을 질문한 대목이 주목된다. 慕容垂가 拓跋部の 君長인 拓跋珪가 자신을 만나러 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慕容垂가 종주국의 군주, 혹은 皇帝이고 拓跋珪는 入朝해야 하는 속국의 君長이었음을 시사한다.¹⁵³⁾ 拓跋儀는 말재주로 이를 모면하였다. 한편 拓跋珪는 拓跋儀를 통해 後燕의 국력을 염탐하였고, 아직 後燕이 강함을 깨달았다.

결국 拓跋珪는 慕容垂의 바람과 달리 後燕의 통제를 벗어났다. 拓跋珪는 登國 6年 秋七月 壬申日(391.8.17) 名馬를 요구하는 慕容垂의 요청을 거부하였다.¹⁵⁴⁾ 『資治通鑑』에 따르면, 拓跋珪가 같은 달 後燕과 외교관계를 끊고 西燕에 사신을 보내 화친하였다.¹⁵⁵⁾ 拓跋部の 강적 중 하나인 賀蘭部가 後燕에게 패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150) 任愛君, 앞의 2001 논문, 38~44면.

151) 『北史』 卷15, 「魏諸宗室·昭成子孫·秦王翰傳附子儀傳」, 561~562면, “及帝將圖慕容垂, 遣儀觀變. 垂問儀道武不自來之意. 儀曰: ‘先人以來, 世據北土, 子孫相承, 不失其舊. 乃祖受晉正朔, 爵稱代王, 東與燕世爲兄弟. 儀之奉命, 理謂非失.’ 垂壯其對, 因戲曰: ‘吾威加四海, 卿主不自見吾, 云何非失?’ 儀曰: ‘燕若不修文德, 欲以兵威自強, 此乃本朝將帥之事, 非儀所知也.’ 及還, 報曰: ‘垂死乃可圖, 今則未可.’ 帝作色問之, 儀曰: ‘垂年已暮, 其子寶弱而無威, 謀不能決. 慕容德自負才氣, 非弱主之臣, 豈將內起, 是可計之.’ 帝以爲然.”

152) 『資治通鑑』 卷107, 「晉紀」 29, 孝武帝太元十三年夏四月條, 3382면, “魏王珪密有圖燕之志, 遣九原公儀奉使至中山, 燕主垂詰之曰: ‘魏王何以不自來?’ 儀曰: ‘先王與燕竝事晉室, 世爲兄弟, 臣今奉使, 於理未失.’ 垂曰: ‘吾今威加四海, 豈得以昔日爲比!’ 儀曰: ‘燕若不脩德禮, 欲以兵威自彊, 此乃將帥之事, 非使臣所知也.’ 儀還, 言於珪曰: ‘燕主衰老, 太子暗弱, 范陽王自負材氣; 非少主臣也. 燕主既沒, 內難必作, 於明乃可圖也, 今則未可.’ 珪善之.”

153) 姚宏傑도 慕容垂는 拓跋部를 藩屬으로 간주하여 마땅히 禮로서 入見해야 한다고 하였고 해석하였다(姚宏傑, 앞의 2000 논문, 129원면).

154)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秋七月壬申條, 24면, “慕容垂止元觚而求名馬, 帝絕之.”

155) 『資治通鑑』 卷107, 「晉紀」 29, 孝武帝太元十六年七月條, 3400면, “魏王珪遣其弟觚獻見於燕, 燕主

시기였다. 拓跋珪는 後燕이 강적 獨孤部和 賀蘭部를 제거하자 자신을 견제할 세력은 劉衛辰의 鐵弗部밖에 없었고, 翟魏와 西燕이 後燕과 대치 중이었기 때문에 後燕이 拓跋部를 공격할 상황이 없음을 알고 취한 조치였을 것이다.¹⁵⁶⁾ 한 연구에서도 西燕의 군주 慕容永과 拓跋部の 君長 拓跋珪의 연합은 완전히 공동으로 慕容垂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임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慕容永의 “勸進尊號”는 拓跋珪와 慕容垂 사이 장기간 지속된 우호관계를 이간하려는 뜻이 있었고 拓跋部和 後燕의 숙적인 西燕의 연합은 拓跋珪와 慕容垂의 우호관계 파탄을 뜻했다.¹⁵⁷⁾ 한편으로 西燕의 군주 慕容永은 386년 이미 皇帝로 즉위했으므로, 그가 拓跋珪에게 皇帝의 칭호를 쓰라고 권한 조치(“勸進尊號”)는 원래 1인만 존재해야 하는 중국의 天下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資治通鑑』에 이 기사가 없어서 拓跋部(北魏)가 새로 끼워 넣은 기록일 가능성도 있다. “皇帝”인 慕容永이 “王”인 拓跋珪에게 皇帝로 즉위할 것을 권한 것은 논리적 모순인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皇帝”로 즉위한 拓跋珪가 後燕의 “皇帝” 慕容垂와 대등하게 되어 사실상 後燕으로부터 독립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두 나라의 사이는 벌어졌고 拓跋珪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 拓跋珪가 395년 後燕의 附塞 諸部를 공격하자 後燕의 군주 慕容垂는 98,000명을 보내 北魏를 공격하였다.¹⁵⁸⁾ 拓跋珪는 部落과 畜産을 黃河 서쪽 1千里 밖으로 철수시켰다.¹⁵⁹⁾ 이후 拓跋

垂衰老，子弟用事，留觚以求良馬。魏王珪弗與，遂與燕絕，使長史張袞求好於西燕。”

156) 後燕은 392년 翟魏, 394년 西燕을 각각 정복하였다. 丁零의 翟魏는 兗州를 중심으로 後燕에 항복과 배반을 반복하여 後燕을 괴롭혔다. 翟魏의 역사는 譚其驤, 「翟魏始末」, 『益世報』 1942. 12.17; 周偉洲, 『敕勒與柔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21~25면; 三崎良章 저, 김영환 옮김, 『五胡十六國-中國史上의 民族 大移動』, 경인문화사, 2007, 101~102면 참조.

157) 孫險峰, 앞의 2012 논문, 147면.

158)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9면, “遣其太子寶及農與慕容麟等率衆八萬伐魏, 慕容德·慕容紹以步騎一萬八千爲寶後繼.”; 『十六國春秋輯補』卷44, 「後燕錄」 3, 352면; 『資治通鑑』卷108, 「晉紀」 30, 孝武帝太元二十年春三月條, 3421면, “魏王珪叛燕, 侵逼附塞諸部. 五月, 甲戌, 燕主垂遣太子寶·遼西王農·趙王麟帥衆八萬, 自五原伐魏, 范陽王德·陳留王紹別將步騎萬八千爲後繼. 散騎常侍高湖諫曰: ‘魏與燕世爲昏姻, 彼有內難, 燕實存之, 其施德厚矣, 結好久矣. 間以求馬不獲而留其弟, 曲在於我, 奈何遽興兵擊之! 拓跋珪沉勇有謀, 幼歷艱難, 兵精馬強, 未易輕也. 皇太子富於春秋, 志果氣銳, 今委之專征, 必小魏而易之, 萬一不如所欲, 傷威毀重, 願陛下深圖之!’ 言頗激切. 垂怒, 免湖官. 湖, 秦之子也.”

159) 『資治通鑑』卷108, 「晉紀」 30, 孝武帝太元二十年七月條, 3421~3422면, “魏張克聞燕軍將至, 言於魏王珪曰: ‘燕狃於滑臺·長子之捷, 竭國之資力以來. 有輕我之心. 宜羸形以驕之, 乃可克也.’ 珪從

珪는 參合陂에서 慕容寶의 後燕軍을 격파하였다.¹⁶⁰⁾ 이에 慕容垂는 親征하여 北魏(拓跋部)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¹⁾ 慕容垂는 396년 親征에 나섰고 拓跋珪는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갔다.¹⁶²⁾ 慕容垂는 參合陂에 이르러 後燕 군사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인 것을 보고 제사를 지냈다. 慕容垂는 분하여 피를 토하고 병에 걸렸고 後燕軍은 후퇴하다가¹⁶³⁾ 上谷의 沮陽에서 죽었다.¹⁶⁴⁾ 十六國時代 최고의 名將 慕容垂가 죽고 아둔한 慕容寶가 즉위하였다. 慕容垂의 죽음이 後燕과 北魏 사이의 力關係를 바꿔 놓았다. 즉 慕容垂가 죽기전 수세에 몰렸던 北魏는 기사회생하고 오히려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慕容垂가 죽자 後燕 정복을 결심한 拓跋珪는 皇始元年(396) 七月 許謙의 청원을 받아들여 天子의 旌旗를 사용하였고 연호를 바꾸었다. 이어서 後燕의 幽州를 포위하고 并州를 점령하였다.¹⁶⁵⁾ 기선을 제압한 拓跋珪는 河北으로 진격하였고 결국

之，悉徙部落畜產西渡河千餘里以避之。燕軍至五原，降魏別部三萬餘家，收稼田百餘萬斛，置黑城，進軍臨河，造船爲濟具。珪遣右司馬許謙乞師於秦。”

- 160)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年十一月條, 3423~3424면, “魏軍晨夜兼行, 乙酉, 暮, 至參合陂西。燕軍在陂東, 營於蟠羊山南水上。魏王珪夜部分諸將, 掩覆燕軍, 士卒銜枚束馬口潛進。丙戌, 日出, 魏軍登山, 下臨燕營。燕軍將東引, 顧見之, 士卒大驚擾亂。珪縱兵擊之, 燕兵走赴水, 人馬相騰, 躡壓溺死者以萬數。略陽公遵以兵邀其前, 燕兵四五萬人, 一時放仗斂手就禽, 其遺迸去者不過數千人, 太子寶等皆單騎僅免。殺燕右僕陳留悼王紹, 生禽魯陽王倭奴·桂林王道成·濟陰公尹國等文武將吏數千人, 兵甲糧貨以巨萬計。道成, 垂之弟子也。”
- 161)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年十一月條, 3425면, “燕太子寶恥於參合之敗, 請更擊魏。司徒德言於燕主垂曰: ‘虜以參合之捷, 有輕太子之心, 宜及陛下神略以服之, 不然, 將爲後患。’ 垂乃以清河公會錄留臺事, 領幽州刺史, 代高陽王隆鎮龍城; 以陽城王蘭汗爲北中郎將, 代長樂公盛鎮薊; 命隆·盛悉引其精兵還中山, 期以明年大舉擊魏。”
- 162)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條, 3426면, “三月, 庚子, 燕主垂留范陽王德守中山, 引兵密發。逾青嶺, 經天門, 鑿山通道, 出魏不意, 直指雲中。魏陳留公虔帥部落三萬餘家鎮平城; 垂至獵嶺, 以遼西王農·高陽王隆爲前鋒以襲之。是時, 燕兵新敗, 皆畏魏, 惟龍城兵勇銳爭先。虔素不設備, 閏月, 乙卯, 燕軍至平城, 虔乃覺之, 帥麾下出戰, 敗死, 燕軍盡收其部落。魏王珪震怖, 欲走, 諸部聞虔死, 皆有貳心, 珪不知所適。”
- 163)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條, 3426면, “垂之過參合陂也, 見積骸如山, 爲之設祭, 軍士皆慟哭, 聲震山谷。垂慚憤嘔血, 由是發疾, 乘馬輿而進, 頓平城西北三十里。太子寶等聞之, 皆引還。燕軍叛者告於魏云‘垂已死, 輿屍在軍。’ 魏王珪欲追之, 聞平城已沒, 乃引還阻山。”
- 164) 『資治通鑑』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二十一年條, 3426면, “垂在平城積十日, 疾轉篤, 乃築燕昌城而還。夏, 四月, 癸未, 卒於上谷之沮陽, 秘不發喪。丙申, 至中山; 戊戌, 發喪, 謚曰成武帝, 廟號世祖。壬寅, 太子寶卽位, 大赦, 改元永康。”
- 165) 『魏書』卷2, 「太祖紀」皇始元年條, 27면, “秋七月, 左司馬許謙上書勸進尊號, 帝始建天子旌旗,

後燕의 수도 中山城과 河北을 점령하였다.¹⁶⁶⁾

V. 결론

383년 淝水의 전쟁 패배 이후 前秦이 붕괴되자 拓跋珪는 우여곡절 끝에 登國元年(386) 代王으로 즉위하였다. 『魏書』에서는 拓跋珪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 때문이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代北의 獨孤部·賀蘭部 등 유목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慕容垂가 자기 휘하에 있던 拓跋珪를 보내 拓跋部の 수장이 되도록 공작한 것이다. 拓跋珪는 주변에 拓跋部の 수장 자리를 다투는 숙부 拓跋窟咄과 사촌동생 烏渥, 獨孤部の 劉顯, 숙적 鐵弗部の 劉衛辰의 숙적들이 있었다. 拓跋珪는 後燕의 군사적 도움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이들을 격파할 수 있었다. 登國元年(386) 十月 拓跋珪는 慕容垂의 아들 慕容麟(慕容賀麟)의 도움을 받아 高柳(현재의 山西省 陽高縣 서북쪽)에서 窟咄을 大破하고 그 部衆을 합쳤다. 登國 2년(387) 六月 慕容麟(慕容賀麟)의 원조 아래 拓跋珪는 馬邑(현재의 山西省 朔州市) 남쪽의 彌澤에서 劉顯을 격파하고 그 部를 거두었다. 後燕의 도움으로 窟咄과 劉顯의 양대 세력을 멸망시킨 후 拓跋珪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졌고 代北에서 劉衛辰의 鐵弗部만이 남았을 뿐이다. 拓跋珪는 登國 6년 十一月(391.12~392.1) 劉衛辰의 아들 直力鞬를 사로잡고 十二月에 劉衛辰을 참하였으며 子弟宗黨 5千餘人을 죽였다. 이는 後燕의 도움 없이 이긴 사실상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었으며, 拓跋珪가 後燕으로부터 자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拓跋珪는 高車와 蠕蠕 등 유목부락을 대파하고 代北과 주변 지역을 평정하였다. 이는 拓跋珪가 中原으로 진격하여 河北을 평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게다가 并州 지역을 지배하던 西燕이 後燕에게 394년 멸망되었다. 西燕의 北魏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出入警蹕，於是改元。八月庚寅，治兵于東郊。己亥，大舉討慕容寶，帝親勒六軍四十餘萬，南出馬邑，踰于句注，旌旗駱驛二千餘里，鼓行而前，民屋皆震。別詔將軍封眞等三軍，從東道出襲幽州，圍薊。九月戊午，次陽曲，乘西山，臨觀晉陽，命諸將引騎圍脅，已而罷還。寶竝州牧遼西王農大懼，將妻子棄城夜出，東遁，竝州平。”

166) 이하 拓跋部(北魏)와 後燕의 전쟁 과정은 崔珍烈, 「16국시대 遼西의 인구 증감과 前燕·後燕·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2015, 211~218면; 高然, 앞의 2018a 논문, 110~117면 참조.

西燕의 멸망 덕분에 北魏는 또 다른 적이 사라지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拓跋珪가 代王에 되어 拓跋部の 군주가 된 후 獨孤部和 賀蘭部를 격파하기까지의 기간은 拓跋部가 後燕의 屬國이었고 後燕의 군사적 도움이 없었으면 존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魏書』는 慕容垂와 拓跋珪의 관계를 현실과 반대로 기록하여 後燕의 慕容垂가 北魏 道武帝에 稱臣·朝貢하는 屬國으로 분식하였고, 後燕이 代北의 강력한 유목세력인 獨孤部和 賀蘭部를 제거하기 위한 出兵을 後燕 군대의 “徵兵” 정도로 격하하였다. 本稿에서는 北魏 道武帝 登國年間 後燕과 北魏의 관계를 복원하였고, 北魏는 後燕의 代北 정책 가운데 반사이익을 얻었고, 자력으로 劉衛辰의 鐵弗部를 정복한 후에야 後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鐵弗部 君長 劉衛辰의 활동을 분석하여 前秦의 拓跋部 정복 이후 拓跋部の 영토를 鐵弗部の 君長 劉衛辰과 獨孤部の 君長 劉庫仁이 兩分했다는 『魏書』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논증하였다. 또 주로 後燕의 군사력으로 獨孤部和 賀蘭部를 정복한 이상 두 부족을 北魏가 부족해산을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군사력과 영향력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賀蘭部和 獨孤部に 한정하는 한, 두 부는 拓跋部の 힘으로 강제로 부족(部落)이 해산된 것이 아니라 後燕에 격파되어 대다수는 後燕의 境內로 옮겨졌고, 拓跋部는 남은 집단을 어부지리로 얻었을 뿐이었다. 賀蘭部가 수십 部, 獨孤部가 36部를 거느린 세력이었음을 고려하면, 後燕과 拓跋部の 공격을 받아 이산된 諸部는 두 부가 거느리고 있던 수십 부와 36部였다. 즉 賀蘭部和 獨孤部の “離散諸部” 혹은 “散諸部落”은 부족연합체의 해체와 개별 부족으로의 환원으로 해석해야 한다.¹⁶⁷⁾ 이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해당된다.

투고일: 2019.07.23

심사일: 2019.08.23

게재확정일: 2019.09.03

167) 崔珍烈, 『中國 北朝 地方統治 研究』, 아카넷, 2019, 117~127면.

참고문헌

- 『晉書』(房玄齡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南齊書』(蕭子顯 撰, 北京: 中華書局, 1972)
- 『魏書』(魏收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北史』(李延壽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新唐書』(歐陽修·宋祁 撰, 北京: 中華書局, 1975)
- 『宋史』(脫脫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85)
-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 『十六國春秋輯補』(崔鴻 撰, 湯球 輯補, 王魯一·王立華 點校, 濟南: 齊魯書社, 1998)
- 高國抗 著, 오상훈·이개석·조병한 역, 『중국사학사』 하, 풀빛, 1998
- 高然,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8
-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1982
- 謝寶富, 『北朝婚喪禮俗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1998
- 三崎良章 著, 김영환 역, 『五胡十六國-中國史上的 民族 大移動』, 경인문화사, 2007
- 吳玉貴, 『《資治通鑑》疑年錄』,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魏俊傑, 『十六國疆域與政區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18
- 李金河, 『魏晉隋唐婚姻形態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5
- 周偉洲, 『敕勒與柔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 崔珍烈, 『中國 北朝 地方統治 研究』, 아카넷, 2019
- 崔珍烈, 「16국시대 遼西의 인구 증감과 前燕·後燕·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2015
- 高 然, 「後燕與西燕의 并立」,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8a
- , 「慕容鮮卑·五燕社會經濟與文化」, 『慕容鮮卑與五燕國史研究』, 北京大學出版社, 2018b
- 遼耀東, 「拓跋氏與中原土族的婚姻關係」, 黃寬重·劉增貴 主編, 『家族與社會』,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5(原載 『新亞學報』 7卷 1期, 1965)
- 譚其驤, 「翟魏始末」, 『益世報』 1942.12.17.
- 孫險峰, 「北魏道武帝早年經歷論考補釋」,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編, 『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十屆年會暨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12
- 安介生, 「北魏道武帝早年經歷考辨-與李凭先生商榷」, 北京: 『民族研究』 2002-4, 2002(K22 魏晉南北朝隋唐史 2002-6, 2002)
- 王仁磊, 「略論北魏道武帝平定河北策略的制定」,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0-6, 2009

- 姚宏傑,「參合陂之役前燕魏關係略論」,『湘陰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00-1(總第 88期), 2000
- _____,「關於道武帝早年身世的若干問題」,『北京大學學報』2003-3, 2003
- 劉玉山·劉偉航,「十六國時期慕容西燕·後燕幾個問題的再探討」,『東南文化』2007-1(總第195期), 2007
- 李 凭,「皇權初建」,『北魏平城時代』,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0(原載,「道武帝早年經歷考」,『中國史研究』1992-1, 1992)
- _____,「北魏道武帝早年經歷的問題」,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武漢大學中國三至九世紀研究所編,『魏晉南北朝史研究:回顧與探索-中國魏晉南北朝史學會第九屆年會論文集』,武漢:湖北教育出版社,2009
- 李玉順,「北魏道武帝早年踪跡考」,『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44-6, 2011
- 任愛君,「登國三年拓跋珪攻擊松漠諸部的歷史真相」,殷憲·馬志強,『北朝研究』2,北京:北京燕山出版社,2001
- 張繼昊,「拓跋珪的崛起與北魏王朝的肇建」,『從拓跋到北魏-北魏王朝創建歷史的考察』,臺北:稻鄉出版社,2003
- 張金龍,「拓跋珪“元從二十一人”考」,『北魏政治與制度論稿』,蘭州:甘肅教育出版社,2002(原載『北朝研究』1995-1, 1995)
- 張俊雷,「從代到魏-拓跋珪復國運動研究」,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2010
- 周一良,「崔浩國史之獄」,『魏晉南北朝史札記』,中華書局,1985
- 勝畑冬實,「拓跋珪の「部族解體」と初期北魏政權の性格」,『早稻田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哲學・史學篇』別冊 20集,1994

Later Yan's Diplomatic Policy of Defeating Dugu and Helan Tribes and the Rising of Tuoba Tribe — The Truth of Foreign Relation between Later Yan and Tuoba Tribe(Northern Wei)

Choi, Jin-yeoul

This thesis is on reconsideration of Taizu Annals of Weishu and demonstration of foreign relation between Later Yan and Tuoba Tribe(Northern Wei). According to Weishu, after Former Qin's lose in Feishui river, Tuoba Gui rebuilt and founded the Tuoba Tribe(Northern Wei), conquering Dugu, Helan and Tiefu Tribe, defeating Later Yan and occupied the Hebei region. But, examining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資治通鑑) and Jinshu, Tuoba Gui's success was due to Murong Chui's military aid checking enemy Dugu and Helan Tribes which were loyal to Former Qin. He helped his nephew Tuoba Gui to become the tribal leader of the weakest Tuoba Tribe in Daibei regions and to win in the succession dispute of Kuduo, assisted by Murong Ying, opponent of him. And he conquered Dugu and Helan Tribes to reinforce military soliders and horses, and to get rid of rear enemy, fighting the residue forces of Former Qin, Murong Ying, and Eastern Jin, which was the start of Tuoba Gui's rising. Using this power vacuum, Tuoba Gui defeated old enemy Liu Weichen, the leader of Tiefu Tribe, and conquered many small tribes in Daibei and Yinshan region, after all beat Later Yan. Murong Chui regarded Tuoba Gui as childish and weak nephew of Tuoba tribe leader didn't expected the latter was stronger and had the power to defeat his army, so didn't keep an eye out young nephew, which was his fault. I argued that Tuoba Gui could not dissolve the tribes himself such as Dugu and Helan Tribes which was defeated by Later Yan, so tribal dissolution was not true.

Key Words : Later Yan, Murong Chui, Tuoba Gui(The Emperor Daowu), Tuoba Gui's Succession Dispute of Kuduo, Dugu Tribe, Helan Tribe, Tiefu Tribe, Liu Weichen, the Battle of Canhebei, tribal dissolution

